

# Sulwhasoo

VOL.90 MARCH/APRIL 2019

VOL.90

Sulwhasoo

Sulwhasoo

MARCH/APRIL 2019





도자 보석함/유아리

정사각형 4개의 조각을 퍼즐처럼 맞추다 보면 꽃이 되기도 하고 네잎클로버나 의도치 않았던 색다른 문양이 만들어진다. 부드러운 곡선이 우아하게 이어지고 색의 선택과 배색은 기품이 넘친다. 금색과 은색의 포인트는 영롱한 보석처럼 찬란하다. 도예작가 유아리의 보석함은 보석보다 더 귀하고 곱다. 보석함이라 말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하학 패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직접 색을 채우다 보니 작업 성공률이 50퍼센트 남짓이라니, 보석만큼 귀하다 할 수 밖에. 작은 뚜껑 하나의 채색을 완성하는 데 꼬박 8시간이 걸릴 정도로 긴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토록 고된 작업인 줄 모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성이 흘러 담기는 대로 10여 년의 시간을 이어 왔다. 도자기라 하면 달항아리나 그릇, 조형 작품 등을 주로 떠올리지만 유아리 작가는 합을 선택했고 도자기로 만든 보석함은 희소한 가치와 더불어 그녀만의 격조 있는 디자인과 정성이 더해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꿈은 그렇게 보석이 되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When you play with four square pieces, you can create shapes in the form of a flower or a four-leaf clover, as well as other unique, unintended patterns. The smooth curve is stretched gracefully, and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colors are majestic. The golden and silver parts shine like glittering jewels. The jewelry box created by Porcelain Artist Ari Yoo is more precious and refined than the jewelry itself. If you do not call it a jewelry box,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an artwork in and of itself. The geometric patterns are filled with colors without any defect, and only about 50% of them have been successfully created. That is why it is as precious as jewelry. It also requires long hours of devotion, as coloring the lid alone takes a full eight hours to finish. Yoo has been doing this for almost 10 years as her heart and feelings led her without knowing how arduous it would be. You may think of a jar, vessel, or sculpture when it comes to porcelain, but Yoo has chosen a box. The jewelry box made of porcelain is not only rare in value, but it has also attracted the attention and love of people due to its noble design and the devotion bestowed upon it from the artist. Thus, her dream has also been turned into a jewel.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 Sulwhasoo

MARCH/APRIL 2019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9,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 Sulwhasoo

VOL.90 MARCH/APRIL 2019



##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피부를 맑게 하는 세안의 지혜
- 12  
**피부 섬기기**  
고귀한 매화로 피어나는 피부의 봄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실용성과 조형성, 두 개의 보석을 담다
- 22  
**공간미감**  
시공을 넘어 빛나는 생활의 유산
- 28  
**건너다**  
아시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드높이다

발행일·2019년 3월 1일(통권 제90호)  
발행인·안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응주, 이윤)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민소연 디자인·이영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http://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 리 다

- 36  
**설화인**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전통
- 44  
**어우러지다**  
아름다운 수납의 지혜
- 50  
**설화풍경**  
곡선이 깃든 삶의 결이 유려하다
- 54  
**설화보감**  
봄이 피어나는 바다의 맛
- 60  
**아름다운 기행**  
눈길 머무르는 곳곳, 찬연한 색채의 무도회
- 66  
**설화수를 말하다**  
젊음을 깨우는 매화의 그윽하고 맑은 힘
- 72  
**설화공간**  
증강현실(AR)로 생생하게 확인하는  
설화수 스토리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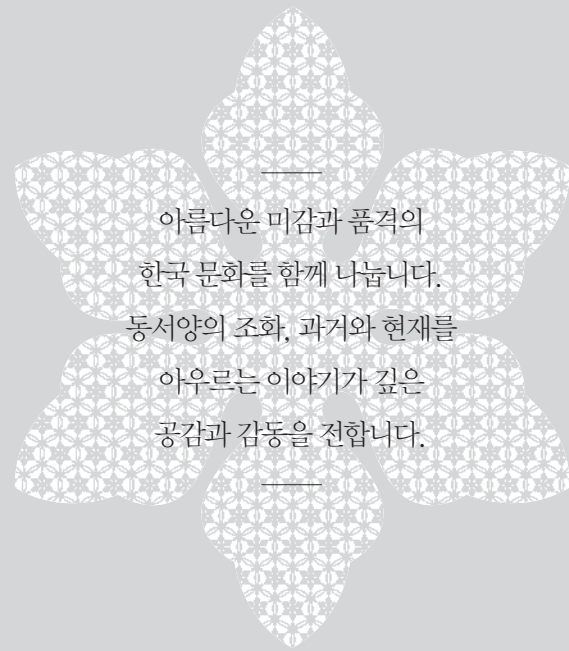


##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돌과 풀, 바탕과 생명의 절묘한 조화
- 82  
**한국의 멋**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속
- 84  
**설화애장**  
압도하거나 움츠러들게 하지 않는, 그 편안함
- 86  
**읽다**  
달고 달아서 살아남은 존재의 향기
- 90  
**집 안 단장**  
모던해진 사랑방, 서재의 품격
- 92  
**몸 단장**  
보드랍고 고운 봄의 자태



- 94  
**프로덕트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 피부를 맑게 하는 세안의 지혜 The Wisdom of Cleansing to Get Clear Skin

여인의 화장은 얼굴을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들이는 정성이지만, 자칫 피부를 해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화장 아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청결한 세안이 더욱 필요하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우리의 전통 화장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얼굴색을 지울 정도로 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피부 상태가 잘 드러나, 세안 등의 기초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피부는 폐와 함께 맑은 산소를 호흡하는 입구이자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출구이기도 하다. 모공이 막히면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며, 외부의 오염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것 역시 피부에 해가 된다. 즉 세안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를 살던 여인들은 어떤 세안을 했을까?

<규합총서 閨閣叢書>에는 '도화면 逃花面'이라는 세안법이 언급되고 있다. "북제 北濟 노사침 盧士琛의 아내 최씨가 재학 才學이 있어 봄날에 복사꽃을 눈썹에 섞어 아이들과 얼굴에 바르고 말하기를 흰 눈을 취하여 아이 얼굴을 씻기면 빛나고 윤지며, 홍화 紅花를 따다 얼굴을 씻기면 곱다 하더라." 이는 복사꽃과 홍화를 이용해 얼굴을 씻는 미용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쌀뜨물이나 곡물을 이용한 세안법은 이미 널리 행해졌다. 녹두나 팥, 콩 등의 곡식을 가루로

The traditional makeup style of Korea was not heavy enough to conceal natural skin tone, unlike that of other countries. Since natural skin tone could be seen through makeup, cleansing and basic skincare were considered important. The skin, along with the lungs, is simultaneously the inlet of clean oxygen and the outlet of the impurities. Clogged pores cannot let impurities and toxins out, thus causing skin troubles and failure to get rid of pollutants. Keeping your skin clean by cleansing is the best regimen for beauty and health.

Then how did the women of the Joseon Dynasty cleanse their skin? <Gyuhapchongseo> mentions a cleansing method, called 'Dohwamyeon.' "Madame Choi, the wife of Nosachim from Northern Qi, had special skills, including mixing peach blossoms with snow on a spring day and applying it onto her kids' and her own face. She said that washing their faces with white snow left the skin radiant, and cleansing the skin with safflower refined the skin." This tells us that they used peach blossoms and safflower to cleanse the skin.

Cleansing with water that was used to clean rice or grains was already popular. They ground mung beans, red beans, and soybeans into powdered form to exfoliate their faces. Mung beans



분홍색 접시와 화이트 미니 저그, 볼은 모두 김남희 작가.  
연핑크 잔은 정지원 작가. 연핑크 접시 by 뷰로.

만들어 비누 대신 얼굴의 때를 벗겼다. 세정은 물론 미백에도 효과가 좋아, 여유가 있는 집은 정월에 일 년치의 세안 가루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썼다고 한다. 녹두는 강력한 해독 능력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화장독 해독제로 사랑받았다.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없애주고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피부 재생을 돕는다. 또한 녹두의 사포닌 성분은 묵은 노폐물과 잡티를 제거하고 얼굴의 열을 내려 여드름과 같은 질환도 개선해준다. 쌀뜨물이나 쌀겨(미강)로 하는 세안은 지금까지도 행해지는 대중적인 방법인 만큼 효능도 널리 알려져 있다. 쌀에 들어 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 성분이 피부를 곱고 매끄럽게 하며, 염증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하다.

세안에 쓰이는 재료들은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피부의 부족함을 채우는 구실을 해내야 한다. 자극이 너무 과하면 피부 결이 거칠어지고 또 다른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깨끗하게 하되 섬세하게 얼굴을 보듬는 세안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가 강구해온 숙제일 터이다. 설화수의 순행클렌징 제품 역시 이러한 오랜 바람에 가까이 다가간 좋은 지혜다. 자연에서 온 순한 재료가 완벽한 세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부평초, 의이인, 진피, 율피 등의 한방 성분을 조합한 순행청은수™가 공통으로 들어 있는 순행클렌징오일과 순행클렌징폼은 세안하는 동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오랫동안 촉촉하게 한다. 특히 순행클렌징오일은 연성 한방 오일 콤플렉스가 클렌징 후 탄력 있는 모공 관리를 도와주고, 순행클렌징폼은 예로부터 피부를 곱고 정결하게 가꿔주는 것으로 알려진 상엽(뽕나무잎)과 산약(참마)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노폐물을 산뜻하게 클렌징해준다. S

are considered exceptional for detoxification purposes, and have long been used to decrease irritation caused by makeup. They remove excess sebum, revitalize tired skin, and restore the skin. The saponin in the mung beans eliminates the buildup of impurities and blemishes, and cools the skin to treat acne and other skin conditions.

Cleansing with water used to wash rice or rice bran is still practiced today, and its efficacies are widely known. The rich minerals and nutrients found in rice refine and smooth the skin, and soothe the redness caused by inflammation.

The ingredients used for cleansing should keep the skin clean, and rejuvenate the skin. They should not be irritating because stimuli will make the skin's texture rough, and cause other skin troubles. The cleansing techniques that cleanse and refine the skin must have been everyone's goal since the olden times. Sulwhasoo's Gentle Cleansing Line is proof of good wisdom that has come closer to reality. The gentle ingredients from nature embrace the method of perfect cleansing. The Hydra Capture Complex™ consisting of Spirodela Polyrhiza Extract, Coix Lacryma-Jobi Ma-Yuen Seed Extract, Citrus Unshiu Peel Extract, and Castanea Crenata(Chestnut) Shell Extract are in both Gentle Cleansing Oil and Gentle Cleansing Foam to supply moisture as you cleanse and leave the skin well-moisturized for a long time. Gentle Cleansing Oil also contains a complex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oil complex to tighten the pores after cleansing, while Gentle Cleansing Foam washes away impurities with moisture, and refines the skin with Morus Alba Leaf Extract and 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 known to be used for making a soft and cleanliness skin in the past.

#### 순행클렌징오일

동백 오일, 살구씨 오일 등으로 구성된 한방 오일 복합체가 부드럽게 롤링되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빠르게 없애주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탄력 있는 모공으로 케어해준다. 부평초, 의이인, 진피, 율피 등 4가지 한방 성분을 조합한 수분 클렌징 포뮬러 순행청은수™가 세안 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촉촉함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200ml 4만2000원

#### 순행클렌징폼

피부의 수분력을 강화해주는 순행청은수™ 거품이 풍부하고 부드럽게 도포되어 피부 노폐물을 없애주는 마일드 리퀴드 클렌징폼이다. 상엽과 산약 추출물 등의 한방 성분이 피부를 곱고 정결하게 가꿔준다. 200ml 3만7000원



타원형 도자기 트레이는 이혜미 작가 by 필동작업실  
그린과 베이지 톤의 오브제는 모두 이세라 작가.



# 고귀한 매화로 피어나는 피부의 봄 Skin Blooms in the Spring with Precious Plum Blossoms

눈 속에서 꽃망울을 터트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는 각별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 설화수는 매화의 빼어난 향산화 에너지를 찾아내 설린크림에 담았다. 젊은 피부의 봄이 피어나는 시간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추운 날씨에도 굳은 기개로 꽃을 피우는 매화는 예로부터 봄을 상징하는 품격 있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선비들은 한겨울 언 눈을 뚫고 단아한 꽃과 맑고 은은한 향을 피우는 매화를 지조와 절개의 표상으로 글과 그림에 담아 본받고자 했다. 설화수는 매화가 품은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해 봄처럼 생기 넘치는 젊은 피부로 가꿀 수 있는 비밀을 밝혀냈다. 특히 다양한 매화 종류 중에서도 녹색의 꽃받침에서 꽃을 피우는 녹매화의 꽃봉오리가 빼어난 향산화 에너지를 머금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화하기 전, 생명력이 가장 응축된 꽃봉오리를 정성스러운 손길로 하나하나 직접 수확한 후 설화수만의 노하우로 향산화 성분을 오롯이 추출해 피부에 젊음과 건강을 선사하는 원료로 탄생시켰다. 이 성분은 피부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탄력 효능까지 선사한다.

피부 노화에는 세월의 흐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과 학업에 대한 압박은 물론 결혼 후 맞벌이,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Plum blossoms, blooming regardless of the cold weather in the winter, have been loved as dignified flowers. They have symbolized spring since the olden times. Noble men captured plum blossoms, which bloom as graceful flowers with subtle scents through the snow in the middle of the winter, in their writings and paintings as symbols of integrity and faith. Sulwhasoo focused on the powerful vitality of plum blossoms to discover the secret in keeping your skin as energetic and youthful as the spring. The buds of green plum blossoms with green calyxes have exceptionally powerful antioxidants. Buds with the most condensed energy of vitality before they bloom are carefully picked one by one, and are combined with antioxidants consisting of extracts and Sulwhasoo's knowhow to produce the complex for more youthful, healthier skin. The antioxidants of the plum blossoms reduce oxygen radicals caused by skin exhaustion, help prevent aging, and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skin. The skin ages because of various factors other than time. The pressure of working and studying amid keen competition, and the stress and exhaustion caused by working and raising kids after one





**설린크림**

녹매화 꽃봉오리에 담긴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피로에 의한 노화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등의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생기탄력 크림이다. 보습과 탄력 효능이 탁월한 발아오방종실과 설화유백단 성분은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관리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윤기를 선사한다. 끈적이지 않는 적당한 유분감으로 피부 속은 촉촉하게 겉은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며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 결로 가꿔준다. 50ml 15만원

자수가 놓인 매화 브로치는 모두 김윤선 장인 by 색실문양누비공방. 매화 문양이 그려진 도자기 합은 도예공방오월. 모란 모양의 백자 도시락은 이능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촉진하는 노화의 적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공격까지 더해져 피부 노화를 일찍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피부 표피층에 침투해 수분을 빼앗고, 색소 침착과 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으며 연령을 불문하고 피부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설화수가 녹매화 꽃봉오리에서 찾아낸 항산화 에너지를 듬뿍 담은 설린크림은 고갈된 피부 에너지를 채워 노화를 차단하고 피부의 힘을 키워 어린 피부로 지켜준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며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복구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하다. 생기 넘치는 안티에이징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인 피부 탄력과 수분량, 윤기와 투명도, 피부 결까지 개선하는 설린크림은 이상적인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실현하며 화사한 봄 같은 피부를 선사한다.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저녁은 물론 아침에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마무리해 화장이 잘 받는 피부로 케어해준다. 설린크림에 담긴 은은한 매화 향은 기분까지 싱그럽게 깨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를 이룬다. S

gets married are some of the stimuli that rob one's skin's resilience and promote wrinkles. Then, with fine dust, you have to worry about aging at a younger age. Fine dust penetrates the surface of the skin to reduce moisture, and causes pigmentation and wrinkl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skin's line of defense regardless of age. Bloomstay Vitalizing Line is filled with the energy of the antioxidants that Sulwhasoo has found in the buds of green plum blossoms, replenishing the skin with energy to defy aging and fortifying its resilience for youthful skin. It restores the cells damaged by fine dust, and supplies moisture to dry skin. It is also effective in rebuilding skin barriers and protecting the skin against external stimuli. Bloomstay Vitalizing Cream refines the resilience, moisture, radiance, clarity, and texture of the skin, the five elements required for an energy-enriched, anti-aging solution. By doing so, it realizes the ideal anti-aging regimen so the skin can be as bright as the spring. It gently embraces the skin, and it is mild enough to use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A smoother skin texture is ready for beautiful makeup. The subtle scent of plum blossoms in Bloomstay Vitalizing Cream even uplifts you to achieve ultimate holistic beauty.

설린크림  
사용법  
How to use  
Bloomstay Vitalizing Cream

**Step 1**

내용물을 적당량 덜어내 입가-볼-눈가-이마 부위에 나누어 도포한다.  
Dispense an appropriate amount and apply it over the mouth to cheek and eyes to forehead.



**Step 2**

도포된 부위를 위에서 아래,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꽃매화를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발라준다.  
Smooth the applied area evenly from the top to bottom, from the inside to outside as if drawing the flower(plum blossom).



**Step 3**

눈썹 위, 코 백, 콧방울 옆, 턱 부위를 손끝으로 3초간 눌러 준다. 손가락 전체로 얼굴 라인까지 쓸어주어 탄력과 생기가 느껴지는 피부로 만든다.  
Gently press over the eyebrow, the side of the nose, the rounded part of the nose and a chin with fingertips for 3 seconds. Then, use all fingers to pat the whole face line to make the skin look resilient and vibrant.







## 실용성과 조형성, 두 개의 보석을 담다

### Yoo A Ri

도예 작가 유아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하학적 문양을 디자인하고, 작은 공간을 빈틈없이 색칠하는 유아리 작가. 하지만 그는 집 안 곳곳 유리창마다 꽃과 구름, 무지개를 그려놓는 유치원생 딸과 같은 동심을 지녔다. 별다른 격려와 응원 없이도 10년 넘게 오직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버릇처럼 밤을 새는 것은 그런 동심 때문이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왜, 하필 도자로 보석함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만 제가 도예과에 입학할 당시에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도예 하면 떠올리는 것이 달항아리나 그릇 아니면 도자 조형물 정도였죠. 졸업 작품으로 남들이 잘 안 하는 합판을 선택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자는 생각이었고, 소품을 좋아하던 개인적 취향이 결합돼 보석함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간혹 금속이나 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석함은 봤어도 도자로 만든 보석함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시도에 따른 어려움도 컸을 텐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아야 했어요. 저는 석고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액체화한 흙을 넣어 외벽을 성형하는, 대량생산에 용이한 슬립 캐스팅(slip casting)이란 기법을 씁니다. 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도안을 직접 그려 넣고 색칠을 하는 핸드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뚜껑 하나를 만드는 데만 8시간이 걸

**Why did you choose to make a jewelry box out of porcelain?**

Although not much has changed, many people thought of jars, vessels, or sculptures in relation to porcelain when I majored in Ceramics Arts. I have chosen to create a box for my graduation show mainly to break the prejudice, and I have decided to create a jewelry box out of it, as I have always loved accessories. I have never seen a jewelry box made of porcelain, but only of metal, wood, and plastic.

**You must have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because of the new attempt.**

I had to learn everything from scratch through trial and error. I used plaster, which is water absorbent, to create the framework, and formed the outer apparatus by pouring liquefied clay into it. This is known as slip casting, and it is great for mass production. Then, I have drawn and colored the images in each



보석처럼 영롱한 유아리 작가의 보석함은 블록 조각을 맞추듯 취향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연출할 수 있다. 기하학 문양의 결합과 조형적 반복의 조합은 꽃이 되기도 하고 하트나 클로버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릴 정도로 작업이 더디죠. 이렇게 모순되는 작업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건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도용이 불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표지에 실린 작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늦게 대학원에 진학했던 저는 기왕이면 남들이 손대지 않은 걸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실용성과 조형성이 하나의 복합체로 표현될 수 있는 지금의 보석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표지에 실린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보석함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4개의 조각들이 한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문양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제 작품의 특징이 애당초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합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한데 모이면 네잎클로버가 되기도 한다는 우연성을 가마실에서 발견했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심화, 확장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도달한 작품세계는 어떤 것인가요?**

우선 제 작업은 원형의 물체 성형이 아니라 주로 슬립 캐스팅 기법을 통한 사각형이란 형태적 특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유약을 바

pie by hand, so it has taken me eight hours just to create a lid. I cannot disregard this contradictory method because I believe that the time and effort I have devoted on this cannot be reproduced.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piece on the cover.** I came back to graduate school at a later time and decided to do what others could not. I ended up making both practical and artistic jewelry boxes. The jewelry boxes, including the one on the cover, came in different shapes and designs, but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 patterns and shapes are created by collecting and scattering four pieces. However, this is not what I wanted in the beginning. I made several heart-shaped boxes and discovered in the kiln that they could make a four-leaf clover together. From there, I expanded the idea of rearranging the shapes.

**What is your current world of art?** First of all, my pieces are not made into jiggering, but instead, they are turned into squares

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색 안료를 덧발라 채색하고, 금 등으로 장식했다는 점이 희소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또 다양한 스케치와 패턴의 변주로 인해 작품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마치 레고처럼 공간을 분할하고 조립하는 방식도 흥미롭지만, 핸드페인팅의 색감 또한 아름답습니다.**

사실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다양한 색깔을 얻기 위해 저화도 물감을 써서 자기를 만들기 때문에 높은 불량률을 감수해야 해요. 저온에 적합하게 생산된 물감을 고온에서 쓰면 물감이 끓거나 떨어져 나가니까요. 해서 실험을 통해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색들을 추려내고,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혹 생산이 중단되는 색이 생기기도 해서 아쉽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힘든 점이 많겠습니다.**

기하학적 형태의 결합과 조형적 반복을 치밀하게 계산한 스케치를 하고 일일이 도안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성격상 어떤 오차도 용납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주변에선 사용자들이 핸드페인팅임을 감안

using the slip casting method. Then, Not only I coated them with lacquer but I also colored them with color pigments and decorated them with gold for rarity. Each piece creates a different mood with variations of sketches and patterns.

**It is impressive to see the space divided and assembled as Lego blocks, as well as the beautiful colors used in hand-painted art.** In fact, this is where I put the most effort. In order to create the different colors that I want, I use low temperature paints, so I have to deal with a high proportion of defectives. When the paints produced for low temperatures are baked in a high temperature, they can either boil up or break off. For this reason, I conducted some experiments in order to sort out the colors that can withstand high temperatures to make my own recipes. It was disappointing, however, that some of the colors have been discontinued.

**You must have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 with this labor-**



해서 약간의 색 번짐이나 붓질의 흔적쯤은 양해할 거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런 허점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작업의 성공률은 고작 50퍼센트라고 봐야 하죠. 또 4개의 조각이 하나의 작품인 탓에 하나의 조각이 불량이면 나머지를 모두 버려야 해서 더 더디고 비생산적이죠.

**그렇게 공을 들였어도 불이 받아주지 않으면 허사인 것이 도에잡이요?**

맞아요. 아무리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어깨가 빠지도록 정성들여 색 칠을 한들, 가마 속에서의 시간을 통제할 순 없죠. 그래서 바보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나봅니다.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육아를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이 일을 달갑지 않아 해요. 불이 의도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도예가의 숙명인 것처럼 이 길을 이어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제 작업이 시작된 게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 됐더군요. 어떤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멈추지 않고 달려온 셈이니, 이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와 감성이 담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 순수하고 예쁜 말만 하는 딸아이의 입술이 하트를 닮았다는 걸 깨닫고 기하학 패턴이 모여 하트와 입술 모양이 되는 작업을 했어요. 또 꽃다발을 받은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담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S

**intensive work.** I have to create a sketch based on an accurate calculation of the combination and repetition of geometric shapes and draw each image one by one. I cannot accept any errors, so it is time consuming. People tell me that the users might tolerate some color smudges or some traces of brush strokes because it is hand-painted art, but for me it is not acceptable. Therefore, only about 50% of my pieces are successful. Moreover, since the four pieces make up one complete work, I have to discard all four pieces if one of them is defective. That is why it is time consuming and not very productive.

**When it comes to porcelain, fire controls how it turns out no matter how hard you work.** That is true. I can design the most intricate pattern and do my best to color it perfectly; however, I cannot control the time in the kiln. That is probably why I feel like a fool. If it were for money or honor, I would not have endured it for the last 10 years. My family is still not fond of my job because I only get three to four hours of sleep with the care of children and all. Nevertheless, I am determined to take this path as porcelain artists who are destined to accept that the fire creates.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I started this job. I have just marched forward without any purpose or goal, so I want to look back and convey some narratives and sentiments in my creations. I just realized that my daughter, who is so innocent and pure, has heart-shaped lips. Therefore, I created combinations of geometric patterns that turn into the shapes of hearts and lips. I have also expressed someone's pleasure in receiving a bouquet of flowers. I am planning to continue with this kind of storytelling.



기하학 형태를 치밀하게 계산하기 위해 스케치를 하고 일일이 도안을 그려 넣어 오차가 생기지 않게 신중을 기한다. 핸드페인팅으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채색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귀한 정성이 깃든다.



# 시공을 넘어 빛나는 생활의 유산

## ONYANG FOLK MUSEUM

온양 민속 박물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자연과 역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혜와 신앙으로 이루어낸 생활 풍속.'  
민속의 사전적 의미에는 오랫동안 쌓여 정립된 대중의 일상이 담겨 있다.  
민속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온 특별한 삶의 흔적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키원







온양민속박물관 본관에서는 상설전과 기획전, 뮤지엄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미술 전시 및 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 전통적인 삶의 흔적은 물론 지금 예술의 최전선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온양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민속박물관이다.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978년에 개관해 지난해 40주년을 맞았다. 그 긴 시간 동안 이곳은 유형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면서 현대인이 잊고 있었던 문화적 뿌리를 가늠케 하고 온고지신의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속박물관'이란 이름이 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일까? 붉은 벽돌과 한국의 문살을 형상화한 창문의 조화가 '민속적'이라기보다 의외로 '모던한' 느낌이다. 정문을 지나 잘 정돈된 진입로로 들어가 본관을 마주한 첫인상이다.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으나 도리어 정성이 깃들어 한층 깊은 빛이 나는 윤기로 보인다.

온양민속박물관의 첫 번째 전시실은 한국인의 삶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일생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평생 의례로 설명 가능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어른이 되어 혼례를 치른다. 그리고 직업을 갖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책임을 다하다가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 간단한 삶의 축약본 안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이 존재할 것인가? 각자의 생이 모두 달라도 거의 모든 이가 겪는 통과 의례는, 그래서 보편성을 가진

Onyang Folk Museum is very first private folk museum in Korea. It was established in 1978 to showcase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marked its 40<sup>th</sup> anniversary last year. Through all these years, this venue has been a center of education, tracing the cultural roots of Korea, awakening the spirit of renewal, and learning something new by systematically collecting, preserving, and exhibiting tangible folk cultural resources.

Onyang Folk Museum's first exhibition hall portrays the lives of Korean people. You will realize that the lives of Korean people can be explained by the rite of passage based on Confucianism. A baby is born to a family, grow up in the care of parents, and get married when he or she is a grown-up. Then he or she fulfills his or her responsibilities by making a living and performing ancestral rites. Then he or she grows old and dies. How many dramas are there in this simple law of life? Each person lives a different life, but almost everyone undergoes the rite of passage, which becomes the universal customs and cultures. Along comes the clothing and accessories





온양민속박물관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이용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문의 041-542-6001

홈페이지 www.onyangmuseum.or.kr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된다. 이와 함께 그네들이 입고 꾸민 옷이며 장신구, 지역별로 다채로운 상차림,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갖가지 지혜들이 펼쳐진다. 이미 익숙한 것들이 지닌, 미처 몰랐던 훌륭함을 깨닫는 시간.

두 번째 전시실은 우리 조상이 꾸민 다양한 일터를 재현한다.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던 만큼, 상상 이상의 다양한 흔적이 전해진다. 곡식의 씨를 뿌리고 김을 매어, 거름과 물을 주어 키워내고 거두어 식량으로 챙기는 그 모든 과정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을 터다. 가마니를 짜내는 자그마한 베틀이며 곡식을 빻는 절구 등 생활에 깃든 슬기의 산물이 가득하다. 또한 어업과 사냥, 채집의 현장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 번째 전시실에서는 한국인의 흥과 예술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공간 전면에 가득 들어찬 탈들이 먼저 시선을 빼앗는다. 언뜻 보아도 캐릭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생김새가 같은 것 하나 없이 모두 다르다. 강령탈춤, 봉산탈춤 등 지역에 따른 탈춤의 계보와 함께 보기 좋게 구분되어, 글로만 알았던 주인공들을 이제야 만난 기분이다. 각종 공

people wear, the various types of table setting in each region, and the wisdom to keep the living environment more pleasant.

The second exhibition hall represents the variety of workplaces of our ancestors. Since they were traditional farmers, you can find more traces than you can imagine. The process of planting seeds, plowing the soil, composting and watering, and raising and harvesting crops must have taken enormous efforts and time. The small loom for weaving sacks and the mortars for grinding grain reflect the wisdom of life. Other parts include reenactment scenes from fishing, hunting, and gathering.

The third exhibition hall reflects the entertainment and arts of Korea. Your eyes are drawn to the masks filling the wall as you enter the hall. Each of the masks portrays the unique characters. Each of them is neatly organized along the chronology of mask dances by region, including Gangnyeong Mask Dance and Bongsan Mask Dance. You feel as if you have met characters from

예품과 놀라운 과학 기술의 흔적 역시 우리 민족의 다재다능함을 여실히 전한다.

온양민속박물관 안에는 구정아트센터가 있다. 박물관에서 우리 민족의 옛 모습을 살펴본다면, 구정아트센터에서는 지금 우리의 예술과 미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이 국내에 처음으로 설계한 작품이기도 하다. '충무공의 땅'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고자 거북선을 재해석한 지붕, 충청도의 'ㅁ'자 가옥 구조를 모티브로 한 내부 구조가 흥미롭다. 또한 이타미 준의 건축물답게 창을 이용한 자연광이 실내를 한층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든다. 2014년 재개관한 구정아트센터는 각종 전시, 물론 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뤄지는 예술의 장이 되고 있다.

과거와 지금이 사이 좋게 어깨를 기댄 이곳엔 도시 생활의 복잡함이 피로할 때 훌쩍 떠나올 수 있는 좋은 아지트다. 화려하고 경외스러운 예술이 아닌 옛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시간 여행 하듯 보고 고즈넉한 정원을 산책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그 위치와 자리를 찬찬히 가늠하고 다잡게 하는, S

old stories. The crafts and the amazing scientific technology also tell you about many talents of our ancestors.

Gujeong Art Center is located within Onyang Folk Museum. You can witness traditional Korean lifestyles at the museum, and see the contemporary arts and aesthetics of Korea there. This building is the first work of Itami Jun, a Japanese-Korean architect, in Korea. The roof has reinterpreted the Turtle Ship to symbolize the 'Land of Admiral Chungmugong,' and the interior structure was inspired by the square-shaped layout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Chungcheong Province. Since Itami Jun is known for his use of windows, he brought in natural light to make the interior space much more mysterious and beautiful.

As a venue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rely on each other, it is a great secret hideout that you can visit when the complexity of urban life gets to you— enjoy traveling to the past while watching an exhibition, and carefully think about where you are in life while taking a walk in a quiet garden.



# 아시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드높이다 Heighten the Wisdom and Beauty of Asia

울창한 열대 우림과 찬란한 석양이 내려앉는 해변으로 잘 알려진 말레이시아.  
낭만적인 해변 못지않게 멋있는 산과 쇼핑의 재미까지 갖춘 말레이시아의 고산 도시 '겐탕'에서 아시아의  
지혜를 전하기 위한 설화수의 여정은 계속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터스톡







### 구름 위의 도시를 가득 채운 즐거움

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문화까지 어우러져 문화의 용광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는 그만큼 독특한 매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곳이다. 세계 10대 관광 대국으로 손꼽히는 말레이시아가 품은 수많은 매력 중에서도 겐팅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1시간가량 달리면 해발고도 1800미터에 위치한 겐팅을 만날 수 있는데 산 중턱에 위치한 케이블카를 타고 십여 분 올라가면 구름에 둘러싸인 고원 리조트인 겐팅 하이랜드가 나타난다. 구름 위를 뜻하는 이름 ‘겐팅’에 걸맞은 신비롭고 거대한 도시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한 국제 규모의 카지노와 테마파크, 골프장, 푸드코트, 놀이 기구와 호텔 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갖춰졌다. 대형 쇼핑몰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각종 레스토랑들로 가득하다.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친스위 사원의 절경 또한 감탄을 자아낸다. 비를 불러주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신을 모시는 중국식 불교 사원인 이곳은 겐팅을 대표하는 명소다. 지난해 11월에는 겐팅 하이랜드에 위치한 스카이 에비뉴 물에 설화수 매장이 문을 열어 아시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고원지대의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와 유럽의 예쁜 마을을 닮은 테마파크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핑몰. 무엇보다 말레이시아 유일의 카지노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겐팅 하이랜드에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열대 우림의 웅장한 경관은 기대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구름 위 놀이동산으로 안내한다.

### Pleasure Filling the City Above the Clouds

As one of the top 10 countries of tourism, Malaysia has so many charms, but you cannot miss the beauty and pleasure offered by Genting. Genting, which is nestled at an altitude of 1,800 m above sea level, is an hour drive by car from Kuala Lumpur. Then, you can take the cable car about half way up the mountains and go higher for about 10 minutes, and it will take you to Genting Highlands, the highland resort surrounded by clouds. This mysterious city of ‘Genting’, which means ‘above the clouds’, is a huge city with Malaysia’s only world class casino, theme park, golf course, food court, amusement rides, and hotels. The mega-sized shopping mall is filled with multinational brands and various gourmet restaurants. The picturesque view of the Chin Swee Cave Temple near the peak of the highlands is also amazing. This landmark of Genting is a Chinese-style Buddhist temple that worships the god who calls the rain and keeps the evil spirits away. Last November, Sulwhasoo store opened its doors at the Sky Avenue Mall in Genting Highlands as a new landmark of Asian beauty.





설화수의 높고 깊은 마음으로 아시아의 미미를 완성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섭씨 30도 가량의 더위와 높은 습기의 날씨가 보통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한 겐팅 하이랜드는 평균 20~24도의 시원한 기온이 유지된다. 열대지방 특유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며 상쾌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주말이면 10만여 명이 찾는 말레이시아인이 사랑하는 피서지인 것.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쇼핑몰인 스카이 에비뉴 몰은 세계 곳곳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주얼리, 패션, 뷰티 등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해 쇼핑의 천국으로 불린다. 설화수는 2018년 11월 1일 스카이 에비뉴 몰에 매장을 열어 궁극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세 번째 로드숍으로 넓고 쾌적한 매장에 5세대 디자인을 적용해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세련미와 우아한 감성을 연출했다. 설화수 브랜드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꾸며 방문 고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 연령의 젊은 고객들에게 설화수의 조화와 균형의 가치를 오롯이 전한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은 역시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윤조에센스와 쿠션 제품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설화수의 깊은 마음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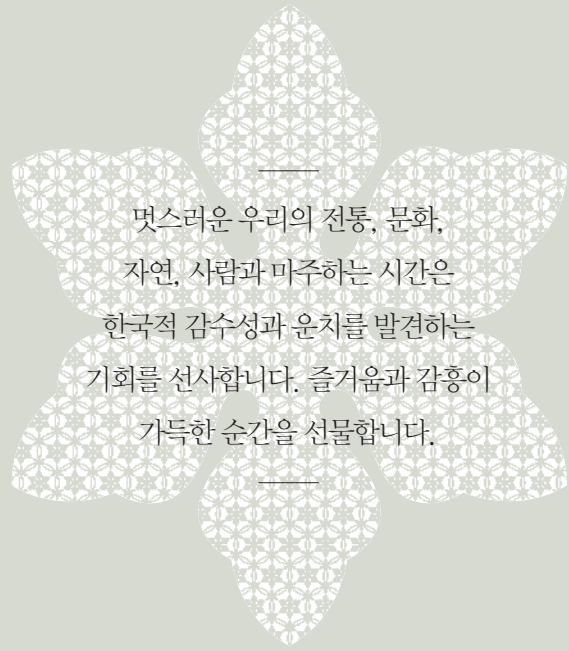
- 1 스카이 에비뉴 Sky Avenue
- 2 미드 밸리 메가몰 Mid Valley Megamall
- 3 선웨이 피라미드 Sunway Pyramid
- 4 팍슨 파빌리온 KL Parkson Pavilion KL
- 5 팍슨 수리아 KLCC Parkson Suria KLCC
- 6 팍슨 선웨이 벨로시티 KL Parkson Sunway Velocity, KL
- 7 팍슨 1 우타마 셀랑고르 Parkson 1 Utama, Selangor
- 8 팍슨 거니 플라자 페낭 Parkson Gurney Plaza Penang
- 9 팍스 더 스프링 쿵칭 Parkson The Spring, Kuching
- 10 팍스 이마고 코타키나발루 Parkson Imago, Kota Kinabalu
- 11 아이온 미드밸리 KL AEON Mid Valley, KL
- 12 아이온 테브라우 시티 조호르바루 AEON Tebrau City, Johor
- 13 이세탄 더 가든스 KL Isetan The Gardens, KL



Completing the Beauty of Asia with Sulwhasoo's Deep Hearted Soul

Malaysia is usually hot and humid at approximately 30°C, but Genting Highlands, located on top of the mountains is comparatively cool at an average temperature of 20~24°C. Genting Highlands attracts over 100,000 local visitors every weekends, as you can enjoy the exotic mood of tropical region, along with the refreshing feeling. The Sky Avenue Mall at Malaysia's highest point is known as the heaven for shoppers with a number of restaurants serving worldwide dishes and various multinational brands of jewelry, fashion, beauty, among others. On November 1, 2018, Sulwhasoo opened a store at the Sky Avenue Mall to deliver the ultimate beauty. It is Malaysia's third road shop with the 5<sup>th</sup> generation design for the spacious and luxurious store to deliver the exquisite beauty and elegance of Sulwhasoo.

The space is designed to help the customers, mainly in their 20s and 30s,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Sulwhasoo brand philosophy and the value of the harmony and balance of Sulwhasoo. The most popular products of Sulwhasoo are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which conveys the philosophy of Sulwhasoo, and the cushion series.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감





전통을 바탕으로 만든 전통  
The tradition based on tradition

# Kim Young Jin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김영진의 한복은 세련됐다. 어느 세대가 입어도 멋스럽다. 누구라도 금방 아름다워진다.  
어느 장소에 피어도 조화로운 꽃처럼 피어난다. 그게 김영진의 한복만이 갖는 다름이고 '차이'이다.  
맞춤 한복 아틀리에 '차이 김영진', 기성 브랜드 '차이킴'의 한복디자이너 김영진을 만났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김영진에게 다르다는 건 익숙했다. 어려서부터 남과 같은 건 재미없었다. 친구들이 열광한다고 쉽게 동요되지 않았다. 내가 좋은 것, 내게 흥미로운 것 그녀의 시선은 늘 자신을 향했다.

“남들 다 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극을 시작한 것도 나중에 패션 슈퍼바이저가 된 것도 그런 기질이 발동해서였죠. 20대 때 한국적인 것에 빠졌어요. 탈춤, 마당놀이, 고성오광대 공부를 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당시 그녀에게 한국적인 것들은 새로움이었다.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 세계화를 외치며 서구 문물에 관심을 쏟던 그때, 김영진은 달라서 신선한 우리 것들을 찾아다녔다. 지금 그의 한복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녀가 여전히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한복도 새로워야죠. 한복은 전통 이전에 패션이에요. 한복이 생긴 이래 쪽 그래왔어요. 패션은 계속 변화해야 하고 신선해야 하며 아름다워야 하죠. 그 기본을 기억하고 충실하려고 해요.”

김영진은 전통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했다. 지금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은 당대의 위대한 발명이었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옛것이라 불리지만 사실 탄생한 순간은 달랐다.

“전통은 창의성의 결정체예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됐던 것들이 시대를 거치며 전통이 됐죠. 오늘의 발명이 내일의 전통이죠. 그래서 전통은 매우 유기적이에요. 14세기, 16세기, 18세기, 바로 어제 도 전통이 될 수 있죠. 어제의 것을 어떻게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 해요. 전통은 흐르고 움직이는데, 전통적인 것을 한다면서 똑같은 것만 재현하면 안 되죠.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Kim has always been different. It has never been interesting to be like anyone else. She has never been easily agitated just because her friends were crazy. She has always been looking for what attracted her, and what made her interested.

“I am not fond of doing what everyone else is doing. That was why I started working in theater, and later became a fashion supervisor. I was into the Korean tradition in my 20s. I traveled across Korea to learn more about Talchum, Madangnori, and Goseongogwangdae.”

At that time, the Korean tradition was new to her. It was an era different from today. When everyone was interested in the Western culture and globalization, Kim sought what was different and fresh. Her Hanbok looks different today because she is still longing for something new.

“Hanbok has to be new. Hanbok now symbolizes fashion. Before, it was associated with tradition. It has always been about fashion. Fashion has to change, and stay fresh and beautiful all the time. That is why I am always sticking to the basics.”

Kim talked about the misunderstandings we have about tradition. What is called tradition today was once a great invention of its time.

“Tradition is the essence of creativity. What was created anew has become tradition. Today's invention is tomorrow's tradition. That is why tradition is very flexible. The 14<sup>th</sup> century, the 16<sup>th</sup> century, the 18<sup>th</sup> century, and even yesterday can be called a tradition. I think a lot about how to make yesterday's creations into something new today. I think the only way to preserve tradition is to make something new based on tradition.”







### 지극히 세련되고 한없이 독창적인

자신의 세계관과 꼭 어울리는 '차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녀는 연극배우였다. 현실이 아닌 세계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탐구하는 연극에 매료됐다. 어려서부터 브랜드 옷보다 구제시장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골라 리폼해 입을 정도로 눈썰미가 있었지만 패션을 업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연극은 패션을 알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패션 쪽 일을 하게 됐을 때 연극배우라는 경력은 유용했죠. 명품 브랜드 슈퍼바이저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갤러리에서 아트 컨설턴트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한복을 시작한 건.”

연극을 하며 판소리를 배우고 광대를 쫓아다니던 그녀는 충실한 직장인으로 10년을 보냈다. 그러다 건강에 무리가 왔고 잠시 직장을 쉬면서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큰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궁금했고 새로웠다.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우연히 무형문화재 박선영 선생님 연구소 간판을 봤어요. 전화를 해서 여쭙더니 한옥마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시연회를 하신다고 해요. 배넛저고리부터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 둘 만들어서 갤러리에 몇 개 걸어놓았던 게 시작이었어요.”

### Extremely sophisticated and endlessly original

It was a coincidence that she launched 'Chai,' the brand that fits her world view. As mentioned above, she was an actress on stage. She was fascinated by theater that ceaselessly explores reality in the world that is far from reality. She was able to pick and renovate some of the most unique designs in secondhand stores to create her own outfits, but she never thought about creating fashion for a living. A young girl, who used to play roles on the stage, learned to sing Pansori, and chased after clowns, spent 10 years as a devoted employee. Then, she had a health problem, and spent time learning to make Hanbok while on leave from work. She did not have a big dream in the beginning. She was just curious, and it was something new to her.

“I went to search a fine place to learn, and came across the sign of the studio of Sun Young Park,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 called to inquire, and she told me that she hosts demonstrations twice a week at Hanok Village. I began with Banaetjeogori. I made one piece after another, and displayed them at my gallery. That is how it all began.”

### The difference of Chai

The Hanbok of 'Chai' is known for its originality around the world outside Korea. Many people already know that supermodel Naomi Campbell came to Korea to look for Korea's original fashion pieces, and highly praised the creations of Chai Kim. Victoria & Albert



## 차이를 만드는 차이

그렇게 만들어진 '차이'의 한복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내한해 차이킴을 소개받고 극찬을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영국 빅토리아앤 알버트 뮤지엄은 '차이 김영진'의 한복을 한국 대표 패션으로 선택해 세 벌을 구입해 전시하고 있다. "개성 있고 독창적이며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 '한계'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전통이라는 한계에 갇히면 소재나 디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레이스 소재나 명품 브랜드에서 쓰이는 외국 원단들도 과감히 사용해요. 또 오트쿠튀르적인 우아함을 위해 전문적인 바느질 장인들과 협업을 하죠. '차이'의 차이를 만드는 크루들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이'의 한복을 이야기하던 그녀는 스타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속옷, 단속곳부터 제대로 된 한복 한 벌을 완성하기까지 스타프들과의 협업이 있기에 가능했다.

화제가 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가 역할을 맡은 애기씨가 입은 한복은 '차이 김영진'의 작품이었다. 금박도 화려한 자수도 없었지만 무척 아름다웠다. 고증을 거쳐 당시 사대부 애기씨에게 쓰였던 옷감을 선택하고 컬러를 생각했다. 100년 전이라고 햇살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격동의 시대였지만 물빛도 하늘빛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김영진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달라서 예쁜, 차이 나는 아름다운 것을 지을 수 있었다. S

Museum in the UK has purchased and exhibited three pieces of Hanbok by 'Chai of Young Jin Kim' as Korea's major fashion icon.

"I try not to set any 'limit' to make unique yet beautiful clothing. You cannot be free with the choice of materials or designs if you are limited by tradition. I do not hesitate to use lace and other foreign textiles used by premium designer brands. Also, I collaborate with sewing masters to achieve the elegance of Haute Couture. There is a whole crew who makes 'Chai' different."

Talking about Hanbok of 'Chai,' which is globally recognized, she expressed her appreciation for her staff members. She has been able to make complete sets of Hanbok, including underwear, as a result of her collaboration with staff members.

The Hanbok, which Tae Ri Kim wore on the popular TV series, <Mr. Sunshine>, was made by 'Chai of Young Jin Kim.' It was very beautiful even without any golden ornaments or colorful embroidery. Kim said she made those wardrobes diligently. She conducted historical research in choosing the textiles and colors that were used by noble ladies at that time.

Kim is not agitated by what is already made. She does not have a frame to fit herself in. That is why she can create designs that are beautiful to look different.

메이크업 유나(꿈로에) 헤어 최린(꿈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차이킴(www.tchaikim.co.kr)  
플랫아파트먼트(070-4236-6362), 밀트아타카(02-2038-2809), 류중대 작가(3D 프린팅 받침 소반)  
서하나 작가(동백꽃 민화 작품<Camellia>)





## 아름다운 수납의 지혜

멋진 가구와 아이템만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깨끗한 정리정돈을 위한 지혜로운 수납이다.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수납이 적절히 어우러지도록 정리하면, 쉽고 멋들어진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거실과 서재, 주방 등 집 안 곳곳에서 수납 가구의 활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통의 아름다움을 되살려 새긴 디자인 가구는 더할 나위 없는 우아함을 선사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현대적인 문양과 다양한 색채로 머릿장을 재해석한 장은 함도하 작가. 2 새벽 시간의 산 능선을 표현한 도자 오브제는 모두 이세라 작가. 3 팔각반 형태의 층널로 세련미를 더한 사방탁자는 김명진 작가 by INNERTECT. 4 금속 상판으로 포인트를 준 효죽반은 김명진 작가 by INNERTECT. 5 백색 도자기 찻주전자와 찻잔 받침 모두 유세리 작가. 6 구름을 형상화한 도자 화병은 Jaeryo by ORERARCHIVE. 7 거자색 옷칠 동주전자는 허명옥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8 녹색 잔등갓이 포인트인 금속 소재의 데스크 램프는 권중모 작가. 9 적동에 법랑을 입힌 에스프레소 잔은 김윤진 작가. 10 분홍색 도자기 컵은 이혜미 작가 by 필동작업실. 11 아래 부분에 수납 공간을 마련한 월넛 모듈 소파와 사이드테이블 모두 에이프릴스케이프. 12 옥사로 만든 보자기 패턴의 삼층장은 서경신 작가.

\*노란색 페인트 벽은 DE5317, 민트 색 페인트 벽은 DE5717로 모두 던에드워드 논현점





### 전통 가구가 품은 수납의 미학

조선의 대표적인 수납 가구인 반닫이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집이나 한두 개 정도는 사용하는 가구였다. 의복, 이불, 책, 제기 등 간수하는 물건도 다양했다. 머릿장과 문갑도 인방과 시랑방을 막론하고 두루 사용된 수납 가구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닫이와 문갑을 재해석해 전통의 미와 현대의 쓰임을 갖춘 공예 작가들의 수납 가구는 전통을 넘어 화장대, 거실장, TV장으로 활용되며 공간을 아름답게 정리해준다. 네 면이 뚫려 전시형 수납 기능을 강조한 사방탁자 또한 사랑방이 아닌 주방에서 그릇장으로 활용하기에 그만이다.



**왼쪽 페이지** 1 벽에 걸린 <동백초충도> 액자는 오순경 작가 by 프린트베이커리. 2 모란이 그려진 사각 합과 원형 합은 모두 도예공방오월. 3 실 뜨개로 표현한 섬유 오브제인 '물질공간' 시리즈는 모두 고보경 작가. 4 오묘한 핑크 그레데이션 컬러의 둥근 장 'Color flow'는 서현진 작가 by 오리진. 5 보로 측면에 팔을 켜는 장침을 재해석해 만든 조각 잇기 큐브 쿠션은 장응복 작가 by MONO COLLECTION. 6 '한 사람방' 시리즈 일인병풍은 임형욱 작가. 7 아래 공간에 수납 칸을 마련한 의자 'moire chairs'는 광철안 작가.

**오른쪽 페이지** 1 기와를 모티브로 조선시대 가구인 소반을 재해석한 티 테이블은 최준우 작가. 2 연그레이 원형 접시는 김남희 작가. 3 연그레이 불은 정지원 작가. 4 전통가구 친탁의 형태에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색을 낸 금속판을 더한 삼색 친탁은 김명진 작가 by INNERTECT. 5 블랙, 그레이 톤의 도자기 화병과 불은 모두 손호주 작가. 6 카키색 타원 옷칠 나무 도사력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7 붉은색 도사력은 류연희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8 살구색 원형 도사력은 박미경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9 적동에 범랑으로 작업한 비정형의 파란 화병은 김윤진 작가. 10 연필로 스케치한 듯한 도자기 불, 플랫 머그, 화병, 와인잔은 모두 조연예 작가 by LAIK. 11 크고 둥근 브라운 화병은 이인진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2 청록 상판에 그레이 반침으로 각을 준 소반은 조병주 작가. 13 왼쪽에 주황색 옷칠을 한 손잡이 불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4 기와를 모티브로 조선시대 가구인 '연상'을 재해석한 산반 겸 티 테이블은 최준우 작가. 15 민트색 옷칠 매트리스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6 백색 꽃볼, 숟가락, 굽접시, 주전자, 지그는 모두 박성극 작가. 17 분홍 상판에 노란색 반침으로 각을 준 소반은 조병주 작가. 18 모란 잔과 주전자는 모두 도예공방오월.

\*분홍색 파티션 페인트 컬러는 DE5212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왼쪽 페이지** 1 벽에 달린 7자 푸른색 조명은 권중모 작가. 2 연두색의 다용도 꽃이는 정아림 작가 by 소공소공. 3 전통 책함의 형태를 재해석한 보자기 패턴 책함은 서경신 작가. 4 패브릭을 담요로 사용 가능한 직선 프레임의 'mm-chair'는 박성진 작가. 5 기와를 모티브로 조선시대 가구인 촛대를 재해석한 '기와 스탠드' 조명은 최준우 작가. 6 여러 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책꽂이 '4월의 오브제 - 리틀 북레스트'는 월간 오브제. 7 모던한 패턴의 카펫은 Ruckstuhl by 유앤머스. 8 '한 사람방' 시리즈의 'P의 여정 02 - 서안(탁상)'은 이예지 작가. 9 우드 촛대는 모두 월간 오브제. 10 견고하게 짜인 우드 소재 필기도구함은 이예지 작가 by 포인트오브뷰. 11 연필의 느낌을 재현해낸 드로잉용 사프는 AHTO by 포인트오브뷰.

**오른쪽 페이지** 1 가로, 세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서클 선반은 최정우 작가 by 라이플로. 2 컬러 볼로 포인트를 준 골드 촛대는 정아림 작가 by 소공소공. 3 올리브, 그린 컬러의 옷칠 막걸리잔은 박강용 작가 by 라이플로. 4 로코코 문화를 재현한 도미노 벽지 무늬를 커버에 담은 노트는 포인트오브뷰. 5 서류나 우편물을 옆으로 수납하는 실버 메일 박스는 김진식 작가 by 라이플로. 6 푸경에 포인트를 준 베이지색 도자 합은 이혜미 작가 by 필동직업실. 7 실버, 블루 컬러 직사각 형태의 선반은 모두 송범기 작가. 8 튀니지의 도자기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덕종이에 핸드페인팅하여 제작한 불은 isa papier by 포인트오브뷰. 9 황동 판을 망치로 성형하여 올린 텍스처가 돋보이는 불은 Saleem Metal Ateliers by 포인트오브뷰. 10 민들레 생화를 투명한 레진 볼 안에 가득 담아낸 유리 문진은 Aker. by 포인트오브뷰. 11 적동에 범랑으로 작업한 화이트 화병은 김윤진 작가.



### 장식과 수납을 동시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선반을 활용한 벽면 수납에 주목해야 한다. 선반 위에 책이나 액자, 오브제 등 취향과 감성을 담은 물건을 전시할 수 있고, 선반 자체의 세련된 디자인은 멋진 벽을 멋스럽게 만들어준다. 사랑방에 놓였던 장이나 경상 등의 가구들도 완벽한 비례미와 간결한 실용성을 갖춰 현대의 서재를 모던하고 세련되게 채울 수 있다.





## 곡선이 깃든 삶의 결이 유려하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유연한 곡선이 춤추는 미술관이다. 자연의 흐름을 닮은 건축의 언어는 춤을 추듯 마음에 머무른다.  
 몽글몽글한 빛을 가득 머금은 그곳에 설화수의 봄을 놓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전시된 작품보다 더 예술 작품 같은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파주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다. 건축계의 시인으로 불리는 포르투갈 출신의 가장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이곳을 대면하면 시의 유려한 문장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마음에 새겨진다.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 같다"라는 알바루 시자의 표현처럼 온화하면서 생동감 넘친다. 건축가가 인도하는 곡선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천장과 벽면에 낸 창을 통해 봄의 온기를 전하는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모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곡선의 위로는 보드레한 봄의 그것과 닮았다.



## 봄의 생기를 머금은 화사한 피부로 피어나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성분을 품은 산자나무 열매가 담긴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파운데이션이 맑고 화사한 피부로 표현해준다.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산자나무 열매의 귀한 성분을 저온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추출해 자연 그대로의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담아 바를수록 생기를 채워준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은 멜팅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을 적용해 뭉침 없이 균일하고 신뜻하게 발리며 3D 퍼프가 얼굴의 미세한 굴곡까지 빈틈없이 채운다.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쉬어 하이dra 포뮬러 기술로 부드럽고 얇게 발리고 촉촉한 수분을 머금은 피부가 완성된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 12g 5만8000원,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30ml 5만8000원

반달 형태 홀더와 삼각형 지지대로 구성된 인센스 홀더는 그레이스펙트럼



## 고귀한 새, 봉황의 상서로움이 깃들다

설화수는 상서로운 동물들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서수낙원도'에서 가장 기품 있고 아름다운 한 쌍의 봉황을 담은 리미티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예로부터 봉황은 가정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이 따르는 신성한 새로 여겨졌으며 이번 컬렉션도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김경희 민화 작가의 세련된 미감으로 완성된 고귀하고 아름다운 새 봉황은 퍼펙팅쿠션,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봄에 어울리는 화사한 6가지 컬러를 담은 럭셔리 립팔레트에 새겨져 4월에 출시되며 한정 판매된다. 퍼펙팅쿠션 15g×2 6만5000원,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14g×2 6만8000원, 럭셔리 립팔레트 1.2g×6 6만5000원

샌드 컬러의 가족을 씌운 큐브 오브제와 유리 트레이는 모두 노트블랙





## 봄이 피어나는 바다의 맛

봄의 기별은 바다에서부터 전해온다. 봄 내음과 바다의 맛을 한껏 품은 해산물로 봄의 식탁을 차려보자.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쏘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왼쪽 페이지** 천연 쪽 염색  
패브릭은 오재엽, 윤서현  
작가 by 쿤스트호이테, 백자  
직사각접시는 이택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천연 쪽 염색  
패브릭은 오재엽, 윤서현  
작가 by 쿤스트호이테.  
담블루 컬러의 동그란 도자기  
매트와 민트와 블루 컬러  
수저받침은 모두 박서연 작가.  
접시로 사용한 민트 컬러  
함의 뚜껑은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 향긋한 바다의 꽃 멍게 초무침



#### 재료

멍게 5개, 오이 1/2개, 미역 10g, 소금 약간 (양념장) 식초·맛술 2큰술씩, 간장 1큰술, 매실청 1작은술

#### 만드는 방법

1 멍게는 손질한 뒤 한 입 크기로 썰고 체에 얹어 물기를 뺀다. 2 오이는 얇게 썰어 볼에 넣고 소금을 뿌려 10분간 절인 뒤 맑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짰다. 3 미역은 물에 담가 20~30분간 불린 뒤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썬다. 4 볼에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5 볼에 멍게, 오이, 미역, ④의 간장 양념을 넣고 가볍게 무친다.



고소하고 싱그러운 한 그릇  
성게알 툇 비빔밥



**재료**

성게 알 250g, 툇 50g, 세발나물 10g, 참기름 2/3큰술, 참깨·소금 약간씩, 밥 1공기  
(양념장) 다진 양파·간장·식초 2큰술씩, 설탕 2/3큰술, 고춧가루 약간

**만드는 방법**

1 툇은 맑은 물에서 씻은 뒤,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한 입 크기로 찢는다. 2 볼에 ①의 툇을 넣고 참기름, 참깨, 소금을 넣고 무친다. 3 볼에 양념장 재료를 넣고 고루 섞는다. 4 그릇에 밥을 담고 성게 알과 툇, 세발나물을 얹고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왼쪽 페이지** 출처: 기법의 쪽 염색  
손수건은 오재엽, 윤서현 작가 by  
콘스트호이테, 짙은 녹색 컬러의 조형 손잡이  
볼은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천연 쪽 염색 패브릭은  
오재엽, 윤서현 작가 by 콘스트호이테  
마블링 패턴과 동그란 구 형태의 손잡이가  
독특한 주전자와 컵은 2018년 KODF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선정작으로 김혜린  
작가 by 오브크, 코발트 컬러의 타원 접시는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졸깃함과 향긋한 만남  
주꾸미 볶나물 튀김

**재료**

주꾸미 4마리, 냉이 30g, 두릅 35g, 달래 50g,  
포도씨유 1컵, 녹말가루 약간 (튀김 반죽) 튀김가루  
2/3컵, 녹말가루 1/3컵, 얼음물 1컵

**만드는 방법**

1 주꾸미는 내장과 입을 제거한 뒤 밀가루를 뿌려  
주물러 빨듯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물로 헹군  
뒤 반으로 자른다. 2 냉이와 두릅, 달래는 손질한 뒤  
맑은 물에 씻어 체에서 물기를 뺀다.  
3 볼에 튀김가루, 녹말가루, 얼음물을 넣고 가볍게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든다. 4 주꾸미, 냉이, 두릅,  
달래에 녹말가루를 덧가루로 묻히고 가볍게 털어낸  
뒤 ㉠의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긴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도다리 배추찜

재료

도다리 1마리, 알배추 1/4포기, 세발나물 20g (양념장) 대파(3cm 길이) 1대, 청·홍고추 1/2개씩, 마늘 1톨, 식초 3큰술, 물 2큰술, 간장 1큰술, 고추기름 1/2큰술, 설탕·맛술 1작은술씩

만드는 방법

- 1 도다리는 내장과 비늘을 손질한 뒤 등에 칼집을 넣는다. 2 알배추는 길게 찢는다. 3 대파와 청·홍고추, 마늘을 잘게 다진 뒤 작은 볼에 넣고 나머지 양념장 재료를 넣어 고루 섞는다.
- 4 손질한 도다리는 김이 오른 찜기에서 찜다. 8분 정도 후 배추를 넣고 4분간 더 찜다.
- 5 찜시에 찜 도다리와 배추를 담고 세발나물을 얹은 뒤 양념장을 끼얹는다.



왼쪽 페이지 짙은 녹색의  
개완은 박서연 작가.  
출치기 기법 염색의 초록색  
손수건은 오재연, 윤서현  
작가 by 쿤스트호이테.  
초록색 자기 타원 매트  
이혜미 작가 by 필동작업실  
오른쪽 페이지 민트 컬러  
합은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구름 모양  
수저받침은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달큰하고 감칠맛이 일품  
꼬막 볶나물 비빔면



재료

꼬막 300g, 참나물·냉이 20g씩, 소면 220g, 참기름 1/2큰술, 간장 1작은술, 고춧가루 1/3작은술 (양념장) 고추장 3큰술, 식초·꿀 1큰술씩, 참기름 2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깨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 1 꼬막은 바라바락 주무르듯이 씻어 껍데기에 묻은 뽕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입을 벌릴 때까지 삶는다.
- 2 삶은 꼬막은 살을 발라내 불에 넣고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를 넣어 무친다. 3 참나물과 냉이는 손질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찢는다. 4 볼에 양념장 재료를 넣고 고루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5 소면은 끓는 물에 넣고 3~4분간 삶은 뒤 찬물로 헹구고 체에서 물기를 뺀다. 6 그릇에 소면을 담고 꼬막, 참나물, 냉이를 얹어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 눈길 머무르는 곳곳, 찬연한 색채의 무도회

### Habana & Bali

아바나 & 발리

무채색의 겨울에서 이제 다시 봄, 움트는 생명의 온갖 빛깔이 눈부시게 경쟁한다. 그 호화로운 색채의 향연은 비단 계절의 변화뿐 아니라, 발길 닿는 여행지 곳곳에서도 이루어진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티스톡





전 세계에서 얼마남지 않은 공산주의 나라 중 하나인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거리는 고유의 빛깔로 가득하다. 오래되고 낮은 건물들은 화사한 파스텔톤의 색감으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 위를 사는 사람들도 그렇다.

쿠바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먼저 주홍에 가까운 붉은빛이 떠오른다. 그것은 짙은 굴 색과 어우러져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이거나, 건강한 피부의 소녀가 질끈 머리에 두른 스카프일 수도 있으며, 체 게바라의 얼굴이 강렬하게 새겨진 포스터일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쿠바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물결에 하루하루 급속하게 변화 중이다. 수도 아바나는 그 변화의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동시에 쿠바의 과거가 오롯이 담겨 있기도 하다. 구도심인 비에하에 다다르면 시끌벅적한 광장의 열기가 흥겹다. 룸바와 재즈의 선율이 공기처럼 늘 존재하는 이곳은, 저 아래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으로 더욱 뜨거우며 여전히 젊다. 돌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오래된 대성당을 지나 오비스포 거리에 도착하면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쿠바의 전통음식을 만날 수 있는 식당과 바가 줄을 섰다.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뒤섞여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식사를 즐긴다.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럼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구도심의 문화와 정서를 한껏 느끼고 늦지 않게 말레콘으로 향한다. 방파제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아바나의 북쪽 바닷가를 둘러싼 8킬로미터의 해안도로인 말레콘. 이곳은 아바나의 얼굴이자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 리스트 일순위다. 가난한 시민들은 이곳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바다와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생을 지낸다. 낮은 건물과 허름한 돌이 전부인 여기에서 축복처럼 펼쳐지는 노을의 생생한 빛을 바라보는 순간, 구슬프게 행복을 노래하는 선율이 귓가를 간질인다. 젊은 연인들이 그 아름다운 색깔 아래서 춤을 춘다.

With which color could you express Cuba? First, an orange-like red comes to mind. It would be the sunset that stains the sky with dark orange, a handkerchief tied round a healthy girl's head, or a poster with a powerful face of Che Guevara on it.

Cuba is still a communist state, but it is quickly changing with a strong influence of capitalism. The capital city of Havana is in the middle of such change. At the same time, it is preserving the past of Cuba. You can see the enthusiasm of the people at Havana Old Square (Plaza Vieja). Always filled with rumba and jazz in the air, the unrealized dream of revolution is still fresh. Walk on the smoothly worn stone path to Obispo Street past the old cathedral, while a tasty smell stimulates your nostrils. There is an array of restaurants and bars serving the traditional dishes of Cuba.

After appreciating the culture and sentiments of Old Town, head to El Malecon before it is too late. Meaning "the embankment" in Spanish, El Malecon is a coastal road spanning 8km along the northern coast of Havana. This is how Havana looks, and it is a destination on the bucket list of many international travelers. The melody of the sad and happy songs tickles your ears at sunset, the only blessing of this location, which is filled with old buildings and embankment. Young lovers dance beneath the beautiful colors.

Bali is also known for its original color. Purple associated with undiscovered mysteries and



그 특유의 색채로 따지면 발리 역시 빠질 수 없다. 미지의 신비함과 신의 성스러운 기품을 품은 보라, 그리고 열대우림의 진하다진한 녹색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말 그대로 낮은 야생의 세계다. 발리를 흔히 '신들의 섬'이라 부른다. 왜일까? 산스크리트어로 제물을 뜻하는 '와리'에서 그 이름이 왔을 정도로, 발리는 신실한 이들의 섬이기 때문이다. 가는 곳 어디에서든 신전을 마주한다. 과장이 아니다. 2만 개가 넘는 힌두교 사원이 있고 집집마다 힌두 신전을 모신다. 사원에 켜진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향로의 향기는 모든 공간에 감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이 함께하는 삶. 순박한 신자들의 기도와 웃음이 행복해 보인다.

발리는 신들의 섬이자 서퍼들이 발견한 섬이기도 하다. 깨끗한 바다와 높은 파도는 서퍼에게 천상의 낙원이 아니었을까. 자연 그대로를 만끽할 수 있는 발리는 서퍼가 아니어도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한다. 발리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멘장안섬에서 세계 최고의 스노클링을 즐기고, 행운이 따르다면 수많은 야생 사슴이 해변에 뛰어놀며 수영하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브두글의 보태니컬 가든에서 열대 우림의 진면목을 마주하거나, 우붓 예술 마을에서 현지 장인들의 숨겨진 태어난 다채로운 공예품으로 한껏 치장하는 사치를 부려도 즐거울 터이다.

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색채는 시간이 지나면 후각처럼 덩뎁해지기 마련이다. 여행의 즐거움은 그것을 깨버리고, 새로운 색채와 향기를 만끽하는 것. 우리가 늘 떠남을 그리워하는 이유다. S

God's holy dignity, and rich green of tropical rainforests come to mind.

Bali is often called 'the island of gods.' Why? Bali is an island of religious people, as you can see in its name, which comes from 'Wari,' meaning sacrifice in Sanskrit. You will see a temple anywhere you go. It is not an exaggeration. There are over 20,000 Hindu temples, and each household has a Hindu shrine. The candles at the temples never go off, and the scents from the incense fill the air in every space. They live with gods from morning until night. Prayers and smiles of humble worshippers are a welcome sight.

Bali is not just an island of gods; it is also an island discovered by surfers. The clean seas and the high waves must have offered a paradise for surfers. The natural environment of Bali promise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even for non-surfers. You can enjoy snorkeling in Bali's most beautiful beach located in Menjangan Island. If you are lucky, you can even witness countless wild deer running and wading around the beach. It would also be exciting to see the true aspects of a tropical rainforest at the botanical garden in Bedoegoel, and wear ornaments by choosing from a variety of craft items created by talented local masters in the art village of Ubud.

The original color of a space can become dull over time. The joy of traveling is in breaking away from your daily grind, and enjoying new colors and scents. This is why we always look forward to embark upon a new journey.

지상의 낙원이라는 찬사가 절대 과장이 아닌, 환상적인 풍광을 지닌 발리. 야생의 변화무쌍한 색감에서 자연에 대한 경이감이 순박한 발리인들의 문화와 예술에서는 친밀한 흥취가 느껴진다.





## 젊음을 깨우는 매화의 그윽하고 맑은 힘

눈이 채 녹기 전 가장 먼저 봄을 마중하는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은 피부의 젊음을 지켜주는 설린 라인으로 피어났다.

고결한 숨결로 봄을 터트리는 매화의 힘으로 피부의 생기는 탄탄하게 살아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이종투각 기법으로 매화를 새긴 백자  
화병은 모두 전성근 작가 by 무토.

### 설린 크림 Bloomstay Vitalizing Cream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피로에 의한 피부 노화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등의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생기탄력 크림이다. 매실과 영실 등 5가지 열매로 이루어진 발아오방종실은 피부 탄력 효능을 더하고 향등열매(유자)와 지실탱자나무 열매로 이루어진 설화유백단은 더욱 촉촉하고 유연한 피부를 선사한다. 부드럽게 흡수되는 소프트 쿠션 텍스처가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어 산뜻하게 밀착되어 아침에 사용하면 화장이 잘 받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설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흙물을 붓에 묻혀 표면에 도드라지도록 그리는 기법을 사용한 매화문 주병은 감상인 작가 by 해인요









이중투각 기법으로 매화를 새긴 백자  
연적은 모두 전성근 작가 by 무도

**설린 라인** 빼어난 원료를 찾는 데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설화수가 봄의 생기와 생명력을 품은 매화로부터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를 찾아냈다. 다양한 매화 종류 중에서도 녹매화 꽃봉오리에 가장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이 응축된 에너지를 설린 라인의 주원료로 담았다. 눈 설꽃, 맑을 린漣이라는 이름처럼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의 힘으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현대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과로, 무리한 다이어트와 수면 부족 등은 피부 세포를 피로하게 만들어 세월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노화를 앞당긴다. 설린 라인은 피부피로에 의한 노화에 주목해 에너지가 고갈된 피부 세포에 매화의 생명력을 전해 노화의 징후를 일찍부터 예방하고 탄탄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유지를 가능케 한다. 최근 피부 건강과 노화의 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 또한 설린크림의 매화 추출물이 키워주는 피부 방어력 덕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설린 라인의 첫 단계인 설린수는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와 향등열매(유자)의 보습 성분이 더해진 스킨 컨디셔너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완성해준다.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설린에센스는 탄력감과 농축감을 담은 제형이 밀착감을 높이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탄력을 높여준다. 설린크림은 외부 유해요인과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하고, 소프트 쿠션 텍스처의 산뜻한 발림은 부드러움과 탄력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설린 라인에 담긴 은은하고 품격 있는 매화 향은 지친 몸과 마음까지 생기로 채워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한다. 매화의 맑은 기운을 품은 설린 라인과 함께 올봄 깊고 그윽한 아름다움을 누리보자. S

**Bloomstay Vitalizing Line** Devoted to searching for only the finest ingredients, Sulwhasoo has found the most powerful antioxidants in plum blossoms, full of vitality and liveliness of the spring.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buds of green blossoms contain the highest quality antioxidants, and condensed energy has been captured in Bloomstay Vitalizing Line.

Stress and overwork, excessive diet and lack of sleep makes skin cells exhausted, and advances the aging process. Bloomstay Vitalizing Line focuses on aging due to skin exhaustion, and delivers the vitality of plum blossoms to exhausted skin cells, thus preventing premature signs of aging and leaving the skin firm and full of vitality. The plum blossom extracts in Bloomstay Vitalizing Cream fortify the skin's line of defense, so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fine dust, one of the biggest stimuli that lead to skin problems. The first step in Bloomstay Vitalizing Line is Bloomstay Vitalizing Water, the skin conditioner formulated with the antioxidants of plum blossoms and moisturizers Yuzu, leaving the skin moisturized and smooth. Bloomstay Vitalizing Serum restores skin resilience, and the texture that is full of resilience and richness embraces the skin with a refreshing finish. Bloomstay Vitalizing Cream protects the skin against external stimuli and aging, while the smooth application of the soft cushion adds to softness and resilience at the same time. The subtle scent of quality plum blossoms in Bloomstay Vitalizing Line replenishes the exhausted body and mind with vitality to deliver the value and positive energy of Sulwhasoo's holistic beauty. Enjoy deep, rich beauty by using Bloomstay Vitalizing Line with the clear energy of plum blossoms this spring.





## 증강현실(AR)로 생생하게 확인하는 설화수 스토리 A Lively Story on Sulwhasoo through AR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브랜드 최초로 AR 증강현실 체험을 기획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설화수의 핵심 원료인 자음단의 탄생과 인삼 연구 과정의 스토리를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증강현실’이란 실제의 이미지 위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여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모든 이미지를 가상으로 재구성하는 가상현실과 비교해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증강현실의 특징이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하였다. ‘AR Experience - 설화수 헤리티지 저니’가 바로 그것.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설화수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핵심 원료인 자음단의 탄생 스토리와 자음생크림의 원료인 인삼 연구 과정 스토리를 AR 증강현실로 담아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설화수의 헤리티지와 원료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설화수 고객의 연령이 더욱 폭넓어지면서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려는 시도다.

체험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층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특정 스폿에서 AR 마커를 맞춰 촬영하면, 그 화면 위로 설화수가 준비한 관련 스토리 영상이 떠오른다. 1층 헤리티지 존에서는 피부 균형의 근간이 되는 원료인 자음단에 대해 알아보고, 2층 지함보 존에서는 설화수가 그동안 해왔던 독보적인 인삼 연구 과정과 자음생크림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3층 컬처 라운지에서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티클래스와 홀리스틱 뷰티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 설화수 공식 홈페이지(www.sulwhasoo.com)에서 도슨트투어 서비스(30분 소요)를 사전 예약한 후 체험하는 고객에게는 설화수 제품의 체험분이 증정된다.

한편, 이번 체험 프로그램 론칭을 기념하여 AR 체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고객을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이벤트 참여권이 주어지며, 설화수 정품을 비롯한 소정의 샘플이 제공된다. S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used AR technology to launch a new experience program called ‘AR Experience-The Sulwhasoo Heritage Journey.’

This experience program uses AR to tell the story about the creation of JAUM Balancing Complex™, the core ingredient that reflects Sulwhasoo’s brand heritage, and the story about the study of ginseng found in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ustomers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Sulwhasoo’s heritage and ingredients through such program.

The AR experience takes place on the 1<sup>st</sup> and 2<sup>nd</sup> floor of Sulwhasoo Flagship Store. Customers can use the tablet PCs available on each floor to capture designated spots with the AR technology, then Sulwhasoo’s story appears on the screen. They can learn about the skin-balancing JAUM Balancing Complex™ at the Heritage Zone on the 1<sup>st</sup> floor, and Sulwhasoo’s original study on ginseng and the birth of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t the Ji Ham Bo Zone on the 2<sup>nd</sup> floor. They can also witness how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been offering the Tea Class and Holistic Beauty Services at the 3<sup>rd</sup> Floor Culture Lounge. Anyone can RSVP the docent tour service(30 minutes) on Sulwhasoo’s official website(www.sulwhasoo.com), and receive the trial kit after the AR experience.

In celebration of the launching of this experience program, customers who upload their pictures of trying the AR on SNS can enter the Lucky Draw Event and win the gifts, including full-sized products and product samples of Sulwhasoo.



‘AR Experience - 설화수 헤리티지 저니’는 그동안 설화수가 만들어온 특별한 가치를 증강현실을 통해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서 3층에 이르기까지 각각 흥미로운 경험들을 준비했으며,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 설화수와 함께 그리는 봄의 서정

### 설린크림, 디지털에서 활짝 피어나다

매화의 강인한 향산화 에너지를 통해 피부에 건강한 생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설린크림의 디지털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설린크림을 만날 수 있고, 실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것처럼 '설린 블룸스테이' 5개 층을 디지털 상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글로벌 패션 뷰티 유틸리티 '젠업'과 '아미송'의 생기 피부 뷰티팁 토크쇼와 설린의 주원료인 매화를 다양한 작가와 함께 재탄생시킨 '매화 컬래버레이션 작품 전시', 내 피부의 미래를 진단하는 '피부 문진 타로 테스트'와 설린크림 샘플링 이벤트를 통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바일에서 [www.bloomstay.co.kr](http://www.bloomstay.co.kr)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네이버에서 '설화수'로 검색해 입장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운영된다.



### 더 산뜻하고 깊이 촉촉해진 클렌징

설화수는 대표적인 클렌징 제품인 순행클렌징오일과 순행클렌징폼을 업그레이드했다. 부평초, 의인, 진피, 율피 등 4가지 한방 성분을 조합한 설화수의 독자적인 수분 클렌징 포뮬러인 순행청은수™를 공통 원료로 사용해 피부의 수분력을 강화하고 세안 후 피부 건강을 위한 한방 성분을 담았다. 순행클렌징오일은 동백 오일, 살구씨 오일 등의 한방 오일 복합체가 모공의 탄력 케어를 도와주고, 순행클렌징폼은 상엽과 산약 등의 한방 성분이 피부를 곱고 정결하게 가꿔주고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부드럽게 도포되어 노폐물을 깔끔하게 클렌징하고 촉촉함은 깊고 오래 남는다. 순행클렌징오일 200ml 4만2000원, 순행클렌징폼 200ml 3만7000원



### 고귀한 새 봉황에 깃든 귀한 마음

설화수는 2016년부터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알리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2019년은 세련된 민화의 미감을 표현하는 김경희 작가와 함께 아름다운 상상의 새, 봉황을 표현한 컬렉션을 출시한다. 예로부터 상서로움을 상징하고 신성한 새로 여겨졌던 봉황을 통해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탄력 있고 매끄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퍼펙팅쿠션', 진주빛 광채로 투명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 브라이팅 쿠션', 촉촉하게 밀착되어 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에서 트윈케이크'와 화사한 봄에 어울리는 6가지 컬러의 립스틱을 담은 '럭셔리 립팔레트'로 구성된다. 퍼펙팅쿠션 15g×2 6만5000원, 자정 브라이팅 쿠션 14g×2 6만8000원, 에서 트윈케이크 11g 5만8000원, 럭셔리 립팔레트 1.2g×6 6만5000원



### 싱가포르에서 첫 꽃망울을 터트린 설린

지난 2월 21일, 매화의 강력한 향산화 에너지로 피부에 봄의 찬란한 생기를 불어넣는 설린의 글로벌 론칭을 기념하는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해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설린의 글로벌 론칭을 축하하기 위해 설화수의 브랜드 뮤즈 송혜교를 비롯해 100여 개의 미디어와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으며 송혜교가 무대에서 진행한 설린 제품에 대한 인터뷰는 설화수 브랜드와 설린에 대한 관심을 한껏 높였다. 설린이 품은 아름다운 가치와 효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품 체험과 설린 VR, 퀴즈 게임, 실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도 열린 호응을 받았다.



설화수  
雪花秀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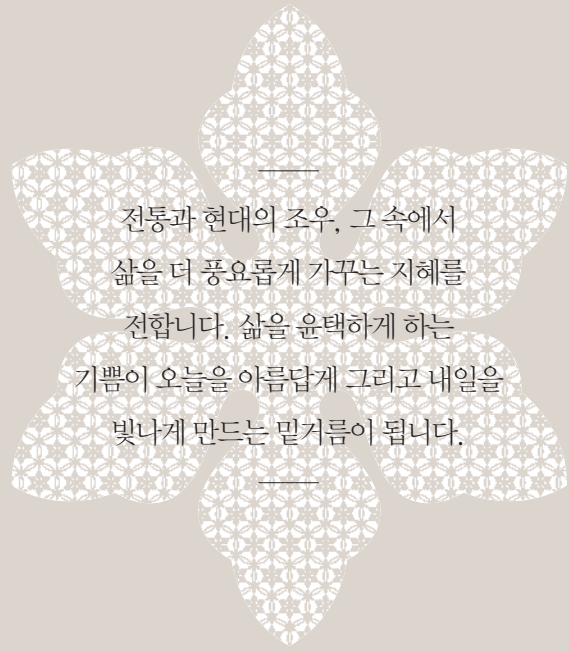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만을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청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류과





야생초와 돌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실제 경치와 가깝게 재현하는 석부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유주다. 자연을 재료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  
이는 창조주가 되고 싶은 예술가의 욕망이자, 경탄을 자아내는 자연을 곁에 두려는 애호가들의 이데아다.

## 돌과 풀, 바탕과 생명의 절묘한 조화

석 부 작 배 우 기

꽃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더욱 조화롭게 꾸며 곁에 두고 즐기는 것이 꽃꽂이라면,  
석부작은 산천초목 그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생생한 자연을 가까이에 두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재민 도움 주신 곳 선선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 바위 위 좁은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소나무 하나. 거친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대견하고 몽클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것은 화분 위의 돌과 양증맞은 솔가지다. 대자연의 드라마가 그 작은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선인들은 이 축소된 자연을 곁에 두고, 자연의 겸허함과 끈질긴 생명력을 생각하고 배웠다고 한다.

### 돌에서 피어나다

‘돌붙임’이라고도 하는 석부작은 야생초와 돌을 조화시켜 자연, 즉 실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꾸며놓은 작품을 이른다.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 옮겨진 수목의 씨앗이 바위 벼랑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장애를 견디며 자라나 기묘한 모양으로 휘고 구부러진 형태. 이것이 석부작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무의 입장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인간에게는 오랜 시간 아름다운 경탄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절경을 분재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 석부작이다.

석부작은 돌을 주제로 식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감상하는 것과 나무의 뿌리를 돌에 감아 밀착시켜 만드는 것(근석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돌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 흥미롭거나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

는, 감상 가치가 있는 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수목은 원칙적으로 석부작을 목적으로 분에서 4~5년 배양해 수행이나 뿌리의 축소에 적응된 소재목이 좋다. 특히 풍란은 석부작에 많이 쓰이는 식물이다. 돌이나 나무, 도자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잘 자라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으며 청초한 잎과 순백의 꽃, 붉고 푸른 뿌리의 색 등이 아름답다. 석부작의 전통적인 형태로는 도석형(섬 모양), 유석형(연못 모양), 폭포석형, 주석형(배 모양) 등이 있다. 주로 돌의 모양에 따라 큰 형태가 결정되며, 자연의 경관이 절로 떠오르는 운치를 가지도록 구상한다.

### 분재, 다듬어 이루는 아름다움

석부작은 방대한 분재의 영역 중 하나다.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나 깎아지른 절벽 사이 노송과 같은 다양한 풍경을 절묘한 기교와 창의력으로 작은 화분 위에 구현하는 분재는 자연을 재료로 또 다른 자연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엽 인위적으로 수행을 꾸미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현재 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말기의 병풍을 보면 네모난 분에 심어진 노송이 수놓아져 있는데, 괴석이 어우러져 있는 구도로 노송의 가지 배치와 생김새가 자연스러워 이상



### 모던 석부작 만들기

**준비물** 유리 화기, 비단이끼 해송(소나무 분재), 배양토, 화강암 등

#### 만드는 방법

- 1 유리 화기 안에 먼저 돌의 위치를 잡고 보이는 방향을 잘 계산해 적절한 구도를 잡는다.
- 2 자리 잡은 돌과 잘 어울리지게 해송을 배치한다. 식물을 선택할 때는 분무로 물 공급을 해서 배수구가 필요 없거나 키우기 까다롭지 않는 종을 택한다.
- 3 식물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배양토를 넣고 잘 다듬어준다.
- 4 배양토 위에 비단이끼를 덮어준다.
- 5 돌과 해송, 흙과 이끼가 아름답게 어울리도록 장식하여 완성한다.

**선선**은 심보라 작가가 운영하는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로 꽃과 식물을 기반으로 교육, 주문 제작, 공간 연출, 조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직접 흙과 식물을 만지며 자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www.flowerdesignsunsun.com](http://www.flowerdesignsunsun.com)



적인 분재의 형태를 가졌다. 조선 초기에는 문신이자 화가였던 강희안이 우리나라 유일의 원예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저술했다. 이 책은 노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 번식하는 방법은 물론 어울리는 수형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아 그 무렵 분재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희안은 시와 글, 그림에 능해 삼절三絶이라 일컬어진 인물로 '분재도盆栽圖'라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 서유구가 쓴 책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출간되었다. 이는 113권이나 되는 방대한 가정백과 전서로, '분경盆景'이라는 이름으로 분재를 다루었다. 내용은 분경통론盆景統論과 분경품제盆景品第, 그리고 분품盆品の 세 가지로 구성된다. 분경통론은 분재와 자연의 관계, 분재의 예술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분경품제는 분재의 품위를 논한 것으로, 노송과 매화나무·대나무 세 가지를 삼우三友라 하여 최고로 꼽았다. 끝으로 분품은 분재에 쓰이는 다양한 분의 종류를 평했다.

이처럼 분재는 조선의 선비들이 사랑한 취미활동이자 예술품 그 자체였다. 사랑방의 탁자 위나 책상머리에 놓아 즐겼고, 궁궐에서는 침전의 후정에 꾸며진 화계花階 위에 놓아 감상하기도 했다. 화계는 건물의 뒤에 생겨나는 경사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다들

은 돌을 쌓아 계단처럼 갖추고 그 자리에 괴석이나 석련지를 얹히고 꽃나무를 심는다. 여기에 분재도 올려 운치를 더했던 것이다. 우리의 분재는 다른 나라의 그것처럼 세세하게 잘라내고 철사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이상적인 형태를 꾸며내려 하지 않는다. 손을 가능한 한 덜 대면서 원래 가진 형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고 창조하는 것. 이러한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원이 바로 그러하듯 말이다.

### 일상의 힐링, 나만의 작은 정원

분재나 석부작은 지금 우리에게 어렵거나 조금은 올드한 취미로 다가올 수 있다. 원칙대로 전통적인 방법을 쓰려면 많은 지식과 안목을 키워야 하지만, 자연을 곁에 두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바람을 이루기는 생각보다 쉽다.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이나 수생식물도 얼마든지 석부작의 재료가 된다. 독특한 생김새의 괴석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주 여행에서 기념으로 가져온 새까만 현무암도 충분히 감각적인 재료가 될 수 있으니, 돌과 풀, 바탕과 생명이 어우러져 이루는 조화에는 엄격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다. 그것 역시 모든 것을 품는 자연의 미덕이다. S



##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속 A Firm, Beautiful Bond

나무를 잘라 다듬어 목재로 만들고 여러 궁리 끝에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가구를 만든다. 나무라는 자연이 인간의 손을 거쳐 가구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장식은 전혀 다른 물성으로 그 변신을 도우며 스스로 나무와 하나가 된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통영시립박물관, 취 프로젝트

장식이란 목가구 등 나무 소재의 물건이나 건축물에 기능을 더하고 장식의 역할을 하며 붙는 모든 금속 장식을 통틀어 이른다. 주로 연결 부분과 모서리의 보강을 위해 쓰이는데 개폐 장치인 자물쇠도 포함된다. 장식을 만드는 장인은 ‘두석장’이라고 한다. 다양한 금속으로 장식을 만들지만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 <승정원 일기> 등에 두석(구리와 아연 합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특히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장인에게도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추정한다. 목가구의 경우 석방(錫房)의 두석장이, 건축물의 장식은 야방장(冶房)의 야장(冶房)이 만든다. 목가구에는 두석과 백동, 철 등 여러 재료가 사용되는데 건축물에는 주로 철이 쓰인다. 장식은 그 기능성도 훌륭하지만 물건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장식이 이루는 문양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일상에서 풍요와 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태도가 깃들여 있다. 먼저 모란, 연꽃, 국화,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넝쿨 등의 식물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넝쿨 문양은 끊이지 않는 연속성을 의미하면서 다른 문양과 어우러진다. 용과 봉황, 나비, 학,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 문양도 자주 쓰였다. 나비는 장자의 호접몽 고사와 이어지며 즐거움이나 행복을 뜻한다. 특히 한 쌍의 나비는 남녀의 사랑과 화합,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한다. 물고기는 지손 변창과 여유 있는 생활을 뜻하며 학과 오리 등의 새 문양은 주로 쌍으로 표현되며 부부의 금슬과 장수를 기원했다. 이 밖에도 기물이나 문자, 기하 형태 등 다양한 문양으로 목가구나 건축물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다. ‘취 프로젝트’는 우리의 장식 장식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우아한 나비 문양의 집게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겸비해, 일상에서도 길한 기운을 얻고자 했던 선인의 지혜에 동참해보게 한다. S

Jangseok refers to all metal ornaments attached to wooden furniture and structures so that they can perform a special function or serve as ornamentation. Jangseok is mainly used for connections and corners, including locks that are open and closed. The master who produces Jangseok is called ‘Duseokjang.’ Various kinds of metal are used to make Jangseok, but it can be assumed that Duseok (copper-zinc alloys) was most widely used because it was often mentioned in <Joseonwangjosillok>, <Ilseongnok>, and <Seungjeongwon Journal>. The patterns of Jangseok have certain symbolic meanings that reflect the ancestors’ wishes for abundance and good fortune. The most popular patterns were peony, lotus flowers, chrysanthemums, pine trees, bamboos, herb of eternal youth, and vines. Vines called Dangchomun symbolize perpetuity, and beautifully blend with other patterns. Other popular patterns were dragons, phoenix, butterflies, cranes, and fish. Butterflies are related to Zhuangzi’s dream about a butterfly and mean pleasure or happiness. A pair of butterflies, in particular, symbolizes the love and unity of a couple. Fish represents fertility, abundance, and joy, while birds, such as cranes and ducks, were usually expressed in pairs to pray for love and longevity of married couples. The ‘Chui Project’ has newly reinterpreted the traditional Jangseok ornaments of Korea. The elegant butterfly-patterned tongs are both traditional and practical, so you can get ancestors’ wisdom, seeking auspicious energy in everyday life.



나비 문양 장식, 김극천 두석장



나비 장식 집게, 취 프로젝트



고운 빛이 아직도 생생한 색동저고리는 양정은 대표가 어릴 적 입던 것이다. 어머니가 한 세트씩 보자기로 곱게 감싸 돈궤 안에 차곡차곡 보관해두던 정성을 이제 그녀가 물려받아 그렇게 행하고 있다.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 압도하거나 움츠러들게 하지 않는, 그 편안함

호 호 당 양 정 은 대 표

전통이 다시 지금의 삶으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귀한 순간. 과거는 시간이 선사하는 성숙함과 정돈된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고 오늘에 흐른다. 호호당 역시 그 흐름에 한뼘하고 있다. 지나간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롭게 표현하여, 익숙하고도 친밀한 감성으로 다가온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재민

고즈넉한 청운동 근처 호호당 쇼룸에서 양정은 대표를 만났다. 한국적인,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일찍 눈을 뜬 그녀는 해외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된 그네들의 전통과 자부심을 접했다. 돌아와서 한국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그것이 호호당의 출발점이 되었다.

호호당은 전통을 재해석하는 일을 한다. 보자기와 유기로 작업을 시작하여, 배넛저고리 등의 아기 용품, 오래 준비해온 한복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깊은 곳에 한국의 색을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메달리스트에게 수여되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어사화 수호랑도 호호당의 작품이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특별한 보자기 포장 '지함보' 역시 호호당과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아기자기하며 귀여운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호호당의 일이다.

“호호당의 시선, 호호당의 방식으로 전통을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진짜 우리나라 전통 용품의 모습, 요즘의 우리 삶에 필요한 편의성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호당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기보다 ‘생활용품’을 소개하는 곳이지요. 예쁘고 편한 것, 적당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삶 속 한구석을 차지하는 것, 그런 존재였으면 해요.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호호당의 물건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순간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통에 가까워지겠지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양정은 대표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압도하지도 않고, 움츠러들게 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려’라고 표현했다. 웅장하고 화려거나 주눅이 들 정도로 정밀한 무언가는 아니지만, 담백하고 따스하며 정겨운 무언가. 그런 정감이 스며든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처럼 우리 옛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릴 적부터 느꼈다는 양정은 대표의 애장품은, 역시 오랜 기억과 연관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돈궤와 어릴 적 입었던 한복이다. 긴 세월 고이고이 간직한 정성이 햇빛처럼 따사로운.

“어릴 적부터 엄마는 철마다, 때마다 한복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 한복들은 한 세트씩 보자기로 곱게 감싸 메모를 곁들여 보관해두셨지요. ‘결혼식 녹의홍상’, ‘약혼식 한복’, ‘우리 정은이 어릴 적 한복’, ‘찬요 돌 한복’... 보따리마다 엄마의 삶,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보자기 꾸러미들을 돈궤에 차곡차곡 넣어두셨어요. 저는 늘 엄마를 닮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삶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싶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더욱 자주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씩, 정성스럽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





## 답고 답아서 살아남은 존재의 향기

비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제구실을 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해야만 한다. 딱딱한 고체이지만 미끄러운 액체로, 거품으로 변화하며 사라질수록 진한 향기를 남긴다. 비누의 이런 다면적인 속성이 어떤 예술가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터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도움 주신 곳 우양미술관

1991년 설립된 경주 우양미술관은 개관 이래 해외 미술관과 연계한 대규모 국제전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면서 시대에 앞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국내의 작가들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회화와 조각, 설치, 비디오아트, 사진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을 소장하면서 이를 다채롭게 소개하는 소장품전과 함께 매년 신선했던 테마의 기획전을 열어 지역 예술문화의 중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천년 고도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주의 지역적 특색과 지금을 사는 우리 풍경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대미술의 만남은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다. 우양미술관의 '우양작가' 시리즈는 한국 예술계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작업의 발전과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는 통로로 기획되었다. 2018년 우양작가 시리즈에는 비누 조각으로 우리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시켜온 신미경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런던과 서울을 무대로 25여 년 동안 작업해온 작가의 작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 미발표작과 신작 60여 점, 아르코미술관 개인전 <사라지고도 존재하는>에서 발표했던 건축 프로젝트를 더해 총 230여 점의 대규모 전시가 펼쳐진다. 신미경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비누를 이용하여 서양 조각상과 회화, 아시아의 불상과 도자기, 나이가 폐허가 된 건축물의 잔해 등 특정 문화를 상징하는 대상을 재현해왔다. 이는 단순한 모사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표피적인 속성만을 절묘하게 취하여 그것을 '비누'라는 특이한 재료로 감쪽같이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은 고대의 유물을, 유약한 특성을 가진 비누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가진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유물, 보물, 건축물)과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가졌지만 사실 그것은 무르고 답고 없어지는 비누일 뿐이라는 현실, 그 기묘한 상황과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전시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먼저 향기가 느껴진다. 공간을 가득 채운 진한 비누 향이 모든 감각을 압도한다. '비누 전시'라는 것을 알고 왔음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이다. 미술관이 가진 시각중심적 속성에 익숙해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것을 이내 깨닫는다. 그 각성이 무척 상쾌하고 신선했다. 층계를 올라 전시관에 다다르자 향기는 한층 더해진다. 눈앞에는 고풍스러운 액자로 가득한 회화 전시관이 펼쳐졌다. 푸른색 벽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색감의 추상화들이 가득 걸려 있다. 가까이에서 보아도 그림과 다를 바 없다. 표면에 생겨난 자잘한 크랙마저 유화처럼 보인다. 비누로 이러한 다양한 색감을 구현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다. 프레임에 의해 강조되는 미술품, 그에 대한 나 자신의 고정관념을 문득 의식하기도 했다. 다음 공간에는 그리스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만한 풍경이 나타난다. 비누 벽돌로 축조된 건축 프로젝트 <폐허 풍경>이다. 기존 12톤으로 제작된 작품에 2톤을 추가해 더욱 거대한 규모로 완성되었다. 폐허는 사라진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이제는 그 흔적만 남은 것. 하지만 바뀌 생각하면 사라졌으나 살아남아 아직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진행형을, 멈춤 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사유를 낳는다. 그리고 보니 폐허를 구현하는 물질이 비누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답고 부서진 잔해의 쓸쓸한 풍경은 그것이 품고 있는 까마득한 시간과 스토리를



우양미술관에서 만나는 <신미경 - 오래된 미래> 특별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누의 변신과 마주한다. 비누는 미술관에 전시된 위엄 있는 명화가, 오래전 공들여 빚은 백자가, 누군가가 신성하게 모셨을 불상이 된다. 무르고 금방 사라지는 속성의 비누가 오래된 것들을 감쪽같이 재현한다.





신미경 <오래된 미래>

기간 5월 19일까지

장소 경주 우양미술관 제3전시실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관람료 성인 5000원, 성인 단체(20인 이상) 4000원 청소년 3000원

청소년 단체(20인 이상) 2000원 미취학 아동(3~7세) 2000원

미취학 아동 단체(20인 이상) 1500원

문의 054-745-7075



전시 기간 동안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우양 원데이 클래스'에서 대리석 무늬의 비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 1층에서는 신 작가의 설치 작품에 관람객이 직접 채색하는 '오래된 미래 컬러링 큐브'도 운영된다.



비누가 시침 뚝 떼고 훑내내는 고대의 유물들. 전시장을 가득 채운 향기가 비누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시킨다. 이 전시는 천년 고도라 불리는 경주의 특성과 만나 다양한 의미와 상상을 낳는다. 원본과 재현된 미술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혼란과 애매함은 이 전시의 주된 테마이기도 하다.

상상하게 만든다. 전시관 안에 마련된 전망대로 오른다. 무너져가는 신전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 아래의 풍경은 역시 향기롭고 아득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향하는 드넓은 시간의 폭이 가져오는 현기증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이 전시의 제목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폐허를 지나 불상이 가득한 진열대와 마주본다. 30여 개의 불상이 이쪽을 몰끄러미 바라본다. 어떤 불상은 머리가 없고 몸통이 유실된 것도 있다. 수많은 기도의 대상이었을 그들은, 시간의 파도로 닳고 사라져가는 중이다. 거기에 깃든 기원과 바람은 어디로 풍화되었을까? 다음으로 백자 가득한 공간에서 멈추었다. 티 없이 흰 빛과 그 우아한 윤기가 틀림없이 백자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비누임을 알고 있다. 비누로 만든 백자는 백자보다 더욱 백자 같은 얼굴로 태연히 거기에 있다. 본연의 향기는 전혀 숨기지 않은 채로, <트랜스레이션- 백자>를 지나 <화석화된 시간>으로 향한다. 여기까지 둘러보면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 다양한 가능성이 비누 향처럼 피부로 파고든다. 엄청난 시간을 견뎌온 것처럼 보이는 석상과 도자기, 그 빛바랜 세월의 흔적이 말하는 무거운 가치. 하지만 그것은 모방된 이미지이다. 그것도 가볍고 연약한 비누라는 물성의 재

료로 말이다. 이는 '오래된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가치평가에 대한 반기'를 뜻할 수도 있을 터이다. 또한 동시에 딱딱하고 강한 물성을 가진 것 역시 시간이라는 거대한 영향 아래에서 비누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은유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관람하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생겨날 것이다. 열린 결말의 소설처럼, 수많은 상상의 타래를 만들어본다. 이번 전시관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은 화장실이다. 화장실 세면대에는 비누 불상이 미소 짓고 있다. 작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미술관의 규칙을 합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기회다. 불상의 부드러운 옷자락을, 얽힌 손 매무새를 쓰다듬어본다. 의심할 것 없이 비누다. 거품을 잘 내어 손을 꼼꼼히 씻는다. 나로 인해 이 불상은 조금 닳았다. 이러한 사용이 축적될수록, 불상은 점점 닳아 뭉툭해지고 평평해져 끝내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변화까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관람자이자 참여자로 서 있게 된다. 오랜 시간 비누로 작업해온 신미경 작가의 작품 세계는 무척 흥미로웠다. 그 개성적인 시도는 유령, 박물관, 기념상, 폐허, 화장실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트랜스레이션(번역)'되고 있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이미지를 번역하여 새로운 감각을 자극할지 궁금하다. S



## 모던해진 사랑방, 서재의 품격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작게라도 마련해보자. 복잡하고 바쁜 일상이 남긴 찌꺼기를 덜어내고 내면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디아)



꽃힌 책과 원목 구의 무게 이동에 따라 시소처럼 기울기가 달라진다. 참신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오들리 책꽂이'는 강영민 작가.



전통 백자로 제작된 펜과 펜대, 잉크병, 페이퍼나이프와 플레이트로 구성된 따뜻한 감성의 도자 문구 꾸러미 시리즈는 권성은 작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물화 중 책을 사랑하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담은 책거리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민화 족자, 오이뮤.

조선시대 사랑방은 한 집안의 남자 주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기본적으로는 학문을 연마하는 문방이자 벗들과 더불어 철학과 정신·풍류를 나눈 교유의 장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보관하는 등 접객 공간이자 서재를 겸했다. 선비들의 공간인 만큼 화려함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멋을 추구했다.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으로 청빈을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검소하고 소박하면서도 사랑방 주인의 안목에 맞도록 꾸몄다. 절제된 생활을 추구하는 의미로 간결한 선과 단순한 구조, 비례미를 갖춘 가구를 선택했으며 선비의 네 벗인 종이, 붓, 먹, 벼루 등의 문방 사우를 귀하게 여기고 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보관하기 위한 용품도 함께 갖추었다. 선비들의 사랑방 격조 있는 꾸밈은 옛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서재를 채우는 데도 훌륭한 답을 제시한다. 여전히 일과 공부, 독서와 사색이 공존하며 창작과 영감을 주는 공간인 서재는 번잡한 구성보다는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세련된 취향과 품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던해진 사랑방은 종일 머물고 싶은 영혼의 안식처다. S



원과 구, 선의 단순한 구성으로 유쾌한 비례미를 표현한 조명. 줄에 달린 노란 고리를 잡아당기면 켜지는 아날로그 감성이 담겼다. 스튜디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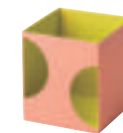
강낭콩 모양의 상판과 동그란 원형의 작은 상판으로 구성해 조각품 같은 조형성을 갖춘 책상은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이메 아욘의 작품. 이노메사.



펜 연필, 클립 등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정리하기에 유용하도록 세 칸으로 구분된 펜꽂이. 심플한 형태와 청량한 블루 컬러가 아름답다. Magic by 짐블랑.



메모지나 펜 등 데스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예지 작가의 '사유함'은 호두나무에 황동을 상감해 고급스럽다.



다양한 도형과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해 책상 위를 경쾌하게 꾸며주는 다용도 꽃이는 정아람 작가 by 소공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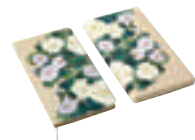
호두나무 원기둥과 황동 원판으로 구성된 '서클 펜 트레이'는 펜을 쓰는 일이 드문 현대인들이 펜을 더 편하고 즐겁게 사용할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에이요프 by 라이플로.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축소하여 전통적인 선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나전으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한 북엔드 세종아트 by 헤브빈서울.



상서로운 동물인 용의 머리를 나무로 섬세하게 조각해 장식한 수납함. 이정훈 작가 by 스튜디오 이기.



옛 선비들이 사랑했던 국화가 그려져 은은한 기품이 느껴지는 양장 커버 수첩. KODF 갤러리.

## 보드랍고 고운 봄날의 자태

가지마다 봄 기운이 앓듯 칙칙하고 무거웠던 겨울옷 대신 봄의 정령들을 맞이할 시간이다. 얼었던 마음도 꽃망울 터지듯 한순간 벅차오른다.

에디터 박효성



한옥 지붕에서 볼 수 있는 기와의 완만한 곡선과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토트 백. 자연을 닮은 카키 컬러가 고급스럽다. 원어퍼포먼스.



싱그러운 나뭇잎과 찬란한 골드가 어우러지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담수 진주가 우아함을 더한 귀걸이는 모드곤.



팬지 꽃을 팝아트 느낌으로 그린 독창적인 아트워크를 담은 실크 스카프. 그린과 퍼플, 블랙 컬러의 조합이 생동감 있다. 영리영리 by 앙봉콜렉터.

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패션이다. 가볍고 화사해진 옷과 꽃이 핀 듯 컬러풀한 액세서리는 꽃샘 추위 속에서도 봄 소식을 앓다투어 전한다. 특히 어둡거나 무채색 일색인 겨울 패션에 대항하듯 눈에 확 띄는 명도 높은 컬러에 손이 가게 마련이지만 과감하게 시도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다. 올봄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자연을 닮은 색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에 주목하자. 온화한 햇살, 연둣빛 새싹, 분홍의 진달래, 생기를 머금은 흙에서 파온 편안한 색은 몸과 마음에 싱그러움을 전한다. 일명 '뉴트럴 컬러'라고 하는데 중성의 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채도가 낮아 차분하고 고급스러우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가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여겨졌던 뉴트럴 컬러가 2019년에는 편견에서 벗어나 봄 여름 시즌의 메인 컬러로 많이 사용되며 따스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전한다.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온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봄이 품은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S



봄의 전령 진달래꽃의 고운 분홍색을 닮은 플랫 슈즈. 불규칙하게 장식된 금속 아일렛이 재미를 더한다. 플랫아파트먼트.



화사한 진주로 꽃을 새긴 진주냥주머니를 현대적인 쓰임으로 재해석한 미니 지갑. 동전이나 반지 등을 수납하기 좋다. 한결.



정성 들여 손수 염색한 천연 나무 손잡이에 묶어 멋스럽게 완성된 가방. 하늘을 닮은 푸른색이 상쾌하다. 쿤스트호이테.



봄날 아침 햇살이 아지랑이를 피우며 나뭇가지에 스민 모습을 형상화한 브로치는 윤주연 작가. 플랫아파트먼트.



봄날 단지에 피어 있는 꽃을 형상화한 펀던트 겸 브로치. 소뿔(우각) 소재의 단지에 전통 매듭 기법으로 꽃을 표현했다. 강선형 by KODF갤러리숍.



나뭇잎이 몽글몽글하게 달린 작은 나뭇가지와 꽃잎을 그대로 재현한 도자기 브로치. 아이올라 by KODF갤러리숍.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섬유 '텐셀'에 수작업으로 자연스러운 색을 입힌 푸른 나무를 닮은 스카프는 쿤스트호이테.



조선시대 민화 중 책가도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 패턴과 생기 넘치는 색감이 특징인 손가방. 아름다운 곡선으로 디자인해 우아하고 고전적이다. 훗컬렉션.



자연을 닮은 전통 색동 컬러를 기하학 패턴으로 재해석해 전통의 감성과 모던한 세련미를 갖춘 스카프는 빈컬렉션.



#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 윤조 라인

<p><b>윤조에센스</b> ● 윤조지향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p> <p>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p> <p>60ml   90,000원대 90ml   120,000원대</p>	<p><b>윤조에센스미스트</b>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p> <p>50ml   40,000원대 110ml   70,000원대</p>	<p><b>윤조마스크</b>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p> <p>5매   60,000원대</p>
--	--	--

### 에센셜 라인

<p><b>자음수</b>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p> <p>125ml   57,000원대</p>	<p><b>자음유액</b> 매끄럽게 펴 밀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p> <p>125ml   63,000원대</p>	<p><b>윤결에센스</b> 피부를 촘촘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p> <p>50ml   125,000원대</p>	<p><b>설리안크림</b>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p> <p>25ml   115,000원대</p>	<p><b>탄력크림</b>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주는 탄력 강화 크림</p> <p>75ml   105,000원대</p>
--	--	--	--	---

### 자음생 라인

<p><b>자음생수</b>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p> <p>125ml   80,000원대</p>	<p><b>자음생에센스</b>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꼭 찬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p> <p>50ml   200,000원대</p>	<p><b>자음생유액</b>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메마른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에일전</p> <p>125ml   90,000원대</p>	<p><b>자음생아이크림</b>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p> <p>20ml   180,000원대</p>	<p><b>자음생페이셜오일</b> 귀한 인삼 증자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정돈된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스오일</p> <p>20ml   130,000원대</p>	<p><b>자음생크림</b>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b>자음생크림 라이트</b>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산뜻한 질감)</p> <p>60ml   250,000원대</p>	<p><b>자음생마스크</b>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더욱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p> <p>5매   120,000원대</p>
--	---	---	--	--	---	--	--

### 진설 라인

<p><b>진설클렌징폼</b> 진한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p> <p>150ml   60,000원대</p>	<p><b>진설수</b>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저속에 건강 미노 성분은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스킨</p> <p>125ml   125,000원대</p>	<p><b>진설에센스</b> 강인한 저속에 진귀한 산양삼 성분은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p> <p>50ml   380,000원대</p>	<p><b>진설유액</b>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저속에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택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일전</p> <p>125ml   140,000원대</p>	<p><b>진설아이에센스</b> 적소 성분과 글루타미네이트 마사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털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p> <p>20ml   270,000원대</p>	<p><b>진설아이크림</b> 눈가 피부의 주름과 자극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털 인티에이징 아이크림</p> <p>25ml   270,000원대</p>	<p><b>진설크림</b> 고귀한 저속과 산양삼의 강인한 생력 에너지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한결같이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크림</p> <p>60ml   470,000원대</p>	<p><b>진설마스크</b> 강인한 저속의 생력으로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p> <p>80ml   200,000원대</p>
---	--	---	--	---	--	---	--

### 설린 라인

<p><b>설린수</b>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톤다운너</p> <p>150ml   75,000원대</p>	<p><b>설린에센스</b>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p> <p>50ml   140,000원대</p>	<p><b>설린크림</b>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p> <p>50ml   150,000원대</p>
--	---	---

### 수술 라인

<p><b>수술미스트</b>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청운함을 주는 수분 진정미스트</p> <p>100ml   42,000원대</p>	<p><b>수술크림</b>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주는 수분 크림</p> <p>50ml   90,000원대</p>	<p><b>수술선플루이드</b> (SPF 50+ / PA+++) 수분 공급 저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플루이드</p> <p>50ml   55,000원대</p>
--	--	---

### 다함설 라인

<p><b>다함설크림</b> 단상과 홍삼이 절묘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럭셔리 인티에이징 크림</p> <p>60ml   650,000원대</p>
--

### 자정 라인

<p><b>자정클렌징폼</b> 백토 성분과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p> <p>150ml   40,000원대</p>	<p><b>자정수</b>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p> <p>125ml   65,000원대</p>	<p><b>자정유액</b>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로션</p> <p>125ml   70,000원대</p>	<p><b>자정미백에센스</b>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p> <p>50ml   210,000원대</p>	<p><b>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b> 기미·잡티 성상을 억제하고 주변 유방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p> <p>25ml   130,000원대</p>	<p><b>자정미백아이에센스</b> 클링 자막 어플리케이터와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p> <p>15ml   75,000원대</p>	<p><b>자정미백크림</b>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p> <p>50ml   135,000원대</p>	<p><b>자정토닝팩</b> 백상 성분을 담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p> <p>80ml   65,000원대</p>
--	--	---	--	--	--	---	--

### 음션 라인

<p><b>자정미백마스크</b>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p> <p>5매   65,000원대</p>	<p><b>상백크림</b>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올루션 미백 선크림</p> <p>40ml   75,000원대</p>	<p><b>음션팩</b>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포 타입 팩</p> <p>150ml   42,000원대</p>	<p><b>예율마사지크림</b>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하고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롤링 마사지 크림</p> <p>120ml   55,000원대</p>	<p><b>여운팩</b>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p> <p>120ml   52,000원대</p>	<p><b>설안팩</b> 묵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p> <p>80ml   85,000원대</p>	<p><b>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b> 병통 성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p> <p>10g   45,000원대</p>	<p><b>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b> 천국, 땅구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p> <p>10g   45,000원대</p>
---	--	--	--	---	---	--	--

### 여운 라인

<p><b>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b>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p> <p>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스킨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amp;리치 타입 페이스오일</p> <p>20ml   85,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p>	<p><b>명의본초염물</b>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택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염물</p> <p>8ml x 4   200,000원대</p>	<p><b>에소침크림&amp;패치</b> 입가 갈라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amp;패치</p> <p>25ml (크림)+10g (패치)   200,000원대</p>	<p><b>에빛크림</b> 빛 갈 윤으로 6(六) 자존을 밝혀 하루 종일 맑게 있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p> <p>50ml + 20ml   150,000원대 튜브 20ml   50,000원대</p>	<p><b>소선보크림</b>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p> <p>50ml   150,000원대</p>	<p><b>탄력네크림</b> 자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눈가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인티에이징 네크림</p> <p>60ml   80,000원대</p>	<p><b>백옥 보석 마사지</b> 얼굴과 목, 바디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져너디 케어 겸용</p> <p>240,000원대</p>
--	---	--	--	---	---	--

### 스페셜 라인

<p><b>공중비누</b> 홍삼향의 향신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수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p> <p>100g x 2   45,000원대</p>	<p><b>순행클렌징워터</b>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깔끔하게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p> <p>200ml   38,000원대 400ml   63,000원대</p>	<p><b>순행클렌징오일</b>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빠르게 없애주는 수분 탄력 클렌징 오일</p> <p>200ml   42,000원대</p>	<p><b>순행클렌징폼</b>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깔끔히 없애주는 마일드 리퀴드 클렌징 폼</p> <p>200ml   37,000원대</p>	<p><b>연성바디크림</b>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에 탄력을 가꿔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 크림</p> <p>200ml   80,000원대</p>	<p><b>동백윤오일</b>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p> <p>100ml   35,000원대</p>	<p><b>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b> ● 청린향 ● 백은향 ● 금유향 ● 홍과향 ● 흑진향</p> <p>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 &amp; 리치 타입 핸드크림</p> <p>40ml   30,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p>	<p><b>에센스본염물</b> 천성과 홍삼이 절묘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시는 홍삼 염물</p> <p>20g x 30   170,000원대</p>
---	--	---	--	--	--	---	--

### MEN

<p><b>리프레시클렌징폼</b>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폼</p> <p>150ml   30,000원대</p>	<p><b>분운에센스</b> 주름 탄력 자극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p> <p>140ml   73,000원대</p>	<p><b>분운유액</b>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p> <p>90ml   52,000원대</p>	<p><b>분운크림</b>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p> <p>40ml   90,000원대</p>	<p><b>릴렉싱 UV 프로텍터</b>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p> <p>50ml   40,000원대</p>	<p><b>메이크업밸런서</b> ● 1호 라이트 핑크 ● 2호 라이트 파플 ● 3호 라이트 그린</p> <p>메이크업밸런서 (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 밸런서</p> <p>35ml   65,000원대</p>	<p><b>CC유액</b>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p> <p>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수면 타입 CC</p> <p>35ml   60,000원대</p>	<p><b>컨실러 스틱</b> ● 1호 미디엄 핑크 ● 2호 미디엄 베이지</p> <p>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정질 한방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p> <p>5g   40,000원대</p>
--	---	---	---	--	---	---	--

### 쿠션

<p><b>퍼펙팅쿠션</b>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백과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요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리어 쿠션</p> <p>15g x 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p>	<p><b>자정 브라이트닝 쿠션</b>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맑고 희한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p> <p>14g x 2   68,000원대</p>	<p><b>퍼펙팅쿠션 인텐스</b> (SPF 50+ / PA+++) 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p> <p>15g x 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	--	--

### 파우더

<p><b>파우더 포 쿠션</b>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번짐 없이 자연스러운 피부 빛을 선사하는 파우더</p> <p>8g   65,000원대</p>	<p><b>멀티 쿠션 하이라이터</b> 피부에 생기 불륨을 선사하는 펄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p> <p>8g   40,000원대</p>	<p><b>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b> (SPF 25 / PA++) 쉬어 하이드라 포뮬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8,000원대</p>	<p><b>쉬어 래스팅 젤 쿠션</b> (SPF 35 / PA++) 벨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p> <p>12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	--	--	---

### 에서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b> (SPF 15 / PA+) 3중 보습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운데이션(크림)</b>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스킨케어(SPF 25 / PA++)</b>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p> <p>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트윈케이크</b> (SPF 30 / PA+++) 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p> <p>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우더</b>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주는 파우더</p> <p>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자정 에센스BB(SPF 50+ / PA+++)</b>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BB</p> <p>30ml   6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자정 미백UV팩트</b>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팅 팩트</p> <p>9g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p>
---	--	--	---	---	---	---

### 진설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메이크업크림</b>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p> <p>30ml   9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파운데이션</b>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p> <p>30ml   9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팩트</b> 영문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p> <p>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호 핑크 하모니</li> <li>2호 코랄 하모니</li> </ul> <p><b>레이디언스 블러셔</b>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를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p> <p>10g   6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호 애플리웃 세럼</li> <li>2호 블러쉬 세럼</li> <li>3호 플라워 핑크</li> <li>4호 로즈 레드</li> <li>5호 블러쉬 코랄</li> <li>7호 딥 베리</li> <li>9호 글로우 오렌지</li> <li>10호 비비드 핑크</li> <li>11호 레디언트 레드</li> <li>12호 소프트 오렌지</li> <li>38호 사블 핑크</li> <li>59호 아메리 레드</li> </ul> <p><b>에센셜 립세럼 스틱</b>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주는 데일리 립 케어</p> <p>3g   4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호 라이트 브라운</li> <li>32호 예시 브라운</li> <li>34호 딥 브라운</li> <li>75호 다크 그레이</li> </ul> <p><b>아이브로우 퍼팩터</b>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토너먼트</p> <p>0.3g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호 라이트 브라운</li> <li>32호 예시 브라운</li> <li>34호 딥 브라운</li> <li>75호 다크 그레이</li> </ul> <p><b>실란 컬러팩트</b> 전통 입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생 균양을 새기고 미세한 입자로 곱고 맑은 피부로 표현하는 프리미엄 컬러팩트 파우더</p> <p>9g×2   18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호 라이트 브라운</li> <li>32호 예시 브라운</li> <li>34호 딥 브라운</li> <li>75호 다크 그레이</li> </ul> <p><b>실란 컬러팩트</b> 전통 입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생 균양을 새기고 미세한 입자로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주는 컬러팩트</p> <p>9g   180,000원대</p>
---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p><b>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b> 자몽단*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사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번째 에센스</p> <p>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p>	<p><b>자음수 랜턴컬렉션</b>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사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p> <p>125ml   57,000원대</p>	<p><b>자음생유액 랜턴컬렉션</b> 매끄럽게 발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아사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스킨 로션</p> <p>125ml   63,000원대</p>	<p><b>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b>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사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b>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b>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사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유</b>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지친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유</p> <p>30ml   130,000원대</p>
--	--	--	--	--	---

<p><b>윤조지향 향초</b>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초</b>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b>윤조지향 포푸리</b> 한방 원료와 나무의 따뜻하고 기쁨 있는 향의 조화로 공간을 고급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p> <p>100g   120,000원대</p>	<p><b>매화지향 포푸리</b>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생명력이 담긴 향의 조화로 공간에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p> <p>100g   120,000원대</p>	<p><b>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b>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b>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b>에센셜 밤</b> 바디부터 헤어까지 선풍적인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p> <p>10g   40,000원대</p>	<p><b>딥 릴렉스 밤</b>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p> <p>10g   40,000원대</p>	<p><b>립 틴트 밤</b>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꾸주는 보습 립 틴트 밤</p> <p>10g   40,000원대</p>
--	--	---	---	---	--	--	--	---

<p><b>공중비누 - 소나무</b> 청량한 소나무 향이 미용과 피부를 편안하게 청정시키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홍삼</b>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향신료의 효능을 홍삼산맥을 함유한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살구</b> 싱그러운 살구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피부로 가꾸어주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매화</b>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핸드워시 백은향</b>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플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매화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는 핸드워시</p> <p>300ml   36,000원</p>	<p><b>핸드워시 흑진향</b>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플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묵직하고 풍부한 향이 활력을 선사하는 핸드워시</p> <p>300ml   36,000원</p>	<p><b>홍삼발효차</b>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한 발효차</p> <p>1.5g×10ea   25,000원대</p>	<p><b>매화차</b>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희망을 전하는 청초한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티</p> <p>1g×10ea   25,000원대</p>	<p><b>세차</b> 곡우 절기에 제주 차 밭에서 재입된 어린 차잎을 담은 전통 작살차</p> <p>1.5g×10ea   20,000원대</p>	<p><b>삼다연 제주영글</b>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글을 더한 블렌딩 티</p> <p>1.8g×10ea   15,000원대</p>
--	---	--	---	--	--	--	--	---	---



### 빼앗긴 나라의 보물을 지키다 <대한콜렉션>

문화재 수집으로 나라를 지켰던 간송 전형필의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일제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보와 보물 등의 귀한 문화재를 수집한 그의 열정이 감사하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독립 애국지사들이 있지만 간송 전형필의 독립운동은 남달랐다. 전 재산을 바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것으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애썼다.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을 설립해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를 보관했고, 이후 간송미술관으로 재편해 그가 꿈꿔 온 대한의 미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간송미술관이 함께 기획 진행하는 전시로 간송이 수집한 국보 6점, 보물 8점,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추사의 글씨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고려 매병의 유려한 S자 곡선의 특징을 지닌 국보 68호 고려청자 '청자상감은화문매병'은 당시 기와집 20채 값을 치르고 구입했고, 친일파 송병준 집에서 불쏘시개로 쓰일 뻔했던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도 간송에 의해 구해져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간송의 문화재 수집 비화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감동과 감사가 더해진 전시다. 일시 3월 31일까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문의 02-2153-0000

### 전시 <데이비드 호크니>



생존 작가로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며 반세기 이상 정상을 지켜온 팝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의 개인전이 국내 최초로 열린다.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되는 이번 전시는 대표작 '더 큰 침방'을 비롯해 '아카틀란 호텔' 시리즈 등 시기별 주요 회화 및 판화 등 80여 점의 전시물 예정이다. 일시 3월 22일~8월 4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스문관 문의 02-2124-8800

### 가무곡 <윤동주, 달을 쓰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시인 윤동주와 뜨거웠던 청년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투쟁을 담은 뮤지컬의 막이 오른다. '팔복'으로 시작해 '십자가', '침묵', '서시', '별헤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까지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을 가사와 대사로 엮어 그의 고뇌와 아픔이 가슴 저리게 와 닿는다. 일시 3월 5~17일 장소 예술의전당 C:도원극장 문의 1577-3363

### 전시 <APMA, CHAPTER ONE>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연다. 뉴욕 맨해튼에 설치되어 유명한 미국 팝 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의 'LOVE' 조형물과 같은 에디션의 설치 작품을 비롯해 회화, 드로잉,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국가의 현대미술을 아우른다. 일시 5월 19일까지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문의 02-6040-2345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설린크림(5명)

추위가 채 가시기 전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매화의 생명력에서 찾아낸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생기탄력 크림입니다. 피부피로에 의한 노화의 징후와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산뜻하게 발리며 부드러움과 탄력을 선사해 젊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 설린에센스(5명)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보습 효과를 가진 발아오방종실 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생기탄력 에센스입니다. 탄력감과 농축감이 더해진 꿀 같은 제형이 피부에 밀착되어 부드럽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19년 4월 15일까지  
 증정 선물 설린크림, 설린에센스  
 당첨자 발표 2019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2019년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진설크림(3명)

류지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이종미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조예람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 자정 브라이팅 쿠션(5명)

김미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김민정 서울시 성동구 돌레길  
 김정숙 경북 김천시 혁신로  
 장채은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정주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019년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Sulwhasoo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으로 탄탄해진 생기를 살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몸의 피로가 쌓이듯 피부도 피로가 쌓인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로가 쌓인 피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이와 상관없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한겨울에 피어나는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피로에 맞서는 설화수 설린  
 이제, 매일 지치지 않는 탄탄한 생기피부를 시작하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몹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린크림       설린에센스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4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신라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한화 면세점	02-2136-2779
동화 면세점	02-399-3123
삼익 면세점	032-743-0543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